
[청년일자리허브 리서치 보고서]

청년니트(NEET)현상 문제 해결을 위한 현장리서치

사회적 문제해결을 위한 청년 현장리서치
: 청년 니트현상 문제해결을 위한 현장리서치

2014. 1

서울시 청년일자리허브



[연구 수행기관]

공공상담소

[연구 참여한]

신희경 연구책임
김은산 공동연구원
이승욱 공동연구원

김경아 청년리서치팀
문조영 청년리서치팀
박아름 청년리서치팀
이호영 청년리서치팀
최지원 청년리서치팀

이 보고서는 2013년도 서울시 청년일자리허브 연구/조사 사업의 결과물로 만들어 졌습니다. 이 저작물은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비영리-동일조건변경허락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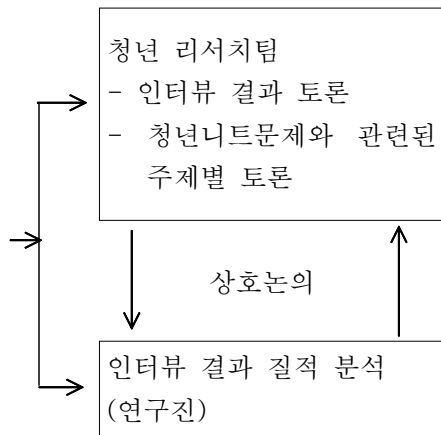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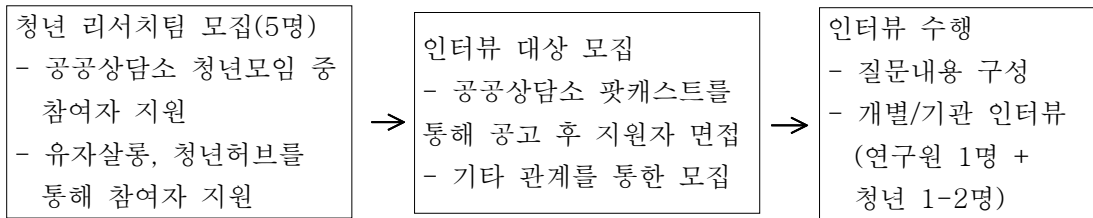


목 차

요약	1
1. 리서치 배경	8
가. 니트의 문제화	8
나. 니트현상에 대한 외국사례의 경우	8
다. 니트현상에 대한 국내 선행연구	10
라. 선행연구의 제한점	11
2. 리서치 방향과 목적	13
가. 문제제기와 리서치 방향	13
나. 리서치 목적	13
3. 리서치 방법과 수행	17
가. 리서치 디자인	17
나. 인터뷰 수행	18
다. 청년 리서치팀	21
4. 리서치 결과	25
가. ‘니트’의 사회화와 상호맥락에 관한 모형개념화	25
나. ‘니트’ 현상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31
5. 결론: 니트현상화 문제의 해결을 위한 새로운 방향과 내용	43
가. ‘니트’에 초점을 둔 해결의 문제점과 새로운 방향	43
나. 새로운 사회화를 위한 핵심과정	43
다. 청년의 생존권 보장을 위한 정책적 제안	49
라. 청년들을 위한 공간	51
참고문헌	53

요 약

- 최근 국제노동기구ILO는 한국 청년(15-29세)들 중 19.2%가 니트 상황에 있다고 발표. 이는 OECD국가 중 7번째로 니트 문제가 심각한 일본보다 2배가 많은 수치임. 한국 역시 고용 없는 성장과 늘어만 가는 청년 실업과 사회안전망의 부재 등 사회구조적 문제를 마주한 상황에서 청년 니트화 현상은 청년실업의 주된 요인으로 인식되고 있음.
- 그러나 우리 사회에서는 아직도 여전히 니트를 일할 의욕이 없는 ‘게으른 청년들’ 혹은 ‘점점 늘어나는 학교와 사회의 부적응 청년들’ 이라는 기존의 사회 통념을 넘어서지 못하고 있으며 개인의 문제로 환원하는 경우가 많음. 이와 더불어 ‘니트’에 대한 국내 선행연구들에서는 이 문제가 사회적인 문제라고 하면서도 사회구조적인 요인과 개인적인 요인이 어떻게 통합되어 구조화되어 있는가를 밝히는 연구는 부재한 실정임.
- 따라서 본 리서치에서는 다음과 같은 연구목적을 설정하고 수행하였음.
 - 사회적으로 니트라고 불리우는 상황에 처하게 된 원인, 현재 상태, 그 상태에 변화를 주는 개인과 외부의 요인과 상호작용의 결과 등의 과정을 설명하는 모형을 밝히고자 함.
이 과정은 개개인이 처한 다양한 상황과 경험들에 근거하여 현재 나타나고 있는 공통적인 현상을 둘러싼 인과적 조건, 맥락적 조건, 중재적 조건을 밝히고 그 조건들이 어떤 맥락에서 상호작용을 하여 변화의 결과로 이어지는가 하는 사회화의 과정을 밝히는 것임.
 - 위에서 맥락적 조건에 해당하는 사회구조적 문제들에 초점을 맞추어 사회적 요인들이 어떻게 개인에게 침투하여 니트라는 현상을 낳게 하고 있는지, 그리고 개인은 그 과정에서 어떠한 침투의 흔적을 경험하게 되는가를 분석하고자 함. 이 해석을 통하여 결론적으로 니트현상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를 설명하고자 함.
 - 사회적 요인과 개인적 요인의 통합적인 관점에 근거한 니트문제의 이해는 기존의 선행연구에서와는 다른 방식의 해결방안을 제시하게 됨. 본 연구에서는 사회구조적 문제로 인한 청년문제로서의 니트 현상에 대한 해결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 리서치 기획과 수행은 다음과 같이 진행되었음.



<모형 1> 리서치 디자인

- 연구를 위한 인터뷰에는 개인 13명, 가족 5가족, 기관방문 인터뷰 세 곳이 참여하였음. 인터뷰는 반구조화된 질문지를 사용하여 진행되었음.

<표 1> 인터뷰 집단의 특성 I

성별		연령			주거지		거주형태(가족과 동거 및 경제적 자립여부)			
남	여	10대	20대	30대	서울경기	그외 지역	주거, 경제 독립	가족동거 경제자립	거주독립 경제적 지원받음	가족동거 경제적 지원받음
4	8	1	7	4	10	2	5	1	2	5
* 7	10	1	10	6	12	6	5	1	3	9

*줄은 가족 인터뷰 대상자를 포함한 숫자임

<표 2> 인터뷰 집단의 특성 II

학력			니트에 대한 생각		인터뷰 참여 방식
고졸이하	대중퇴	대졸 이상	자신이 니트라 생각 하거나 그 밖의 적절한 용어 미발견	본인은 니트라 생각 하지 않거나 벗어났다고 생각	팟캐스트 공공상담소를 통해 지원 (기타권유)
4	4	4	5	7	7(6)
*7	5	5	해당사항 조사하지 못함		8(10)

*줄은 가족 인터뷰 대상자를 포함한 숫자임

○ 본 연구에서는 연구의 기획부터 수행, 평가에 이르는 전 과정에 연구진과 함께 청년리서치팀이 참석하였음. 청년리서치팀은 2013. 11. 18 - 2014. 1. 21까지 총 9회에 걸쳐서 진행되었으며 19세 청년 1명과 20대 청년 4명으로 구성되어있음. 이들은 다양한 이유로 인해 과거 또는 현재 아르바이트 형식을 제외한 다른 교육, 훈련, 고용관계에 속해있지 않았거나 않고 있으며 본 리서치의 인터뷰 대상이기도 하면서 직접 인터뷰어로서 면접과 결과분석에 참여하였음. 이들 모임에서의 인터뷰와 토론 내용은 연구결과 분석에 반영되었음.

○ 리서치 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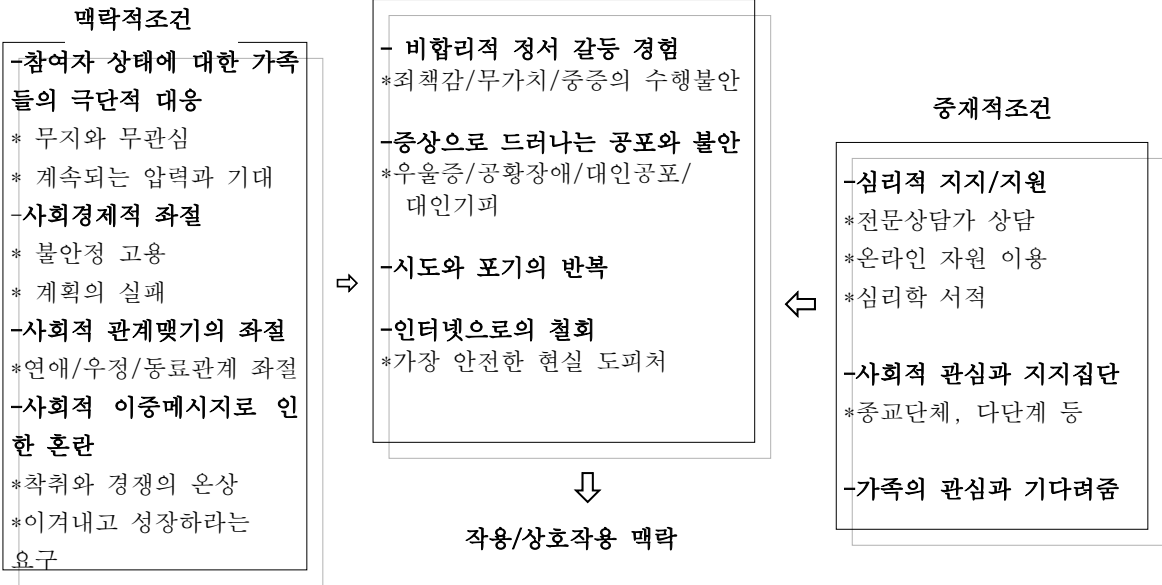
니트의 사회화와 상호맥락에 대한 모형은 다음과 같이 개념화되었음.

인과적조건

- 불신의 근원지로서의 가족
- 사회적 진입을 위한 시도의 좌절



현상



작용/상호작용 맥락

- 개인이 되려 노력하기
 - *부모와 분리하기
 - *자신의 욕구에 충실해지려 하기
 - *자기만의 사회적 공간을 만들려 함
- 자신을 돌보는 것에 관심을 가짐
 - *몸과 감정을 돌보기
 - *증상을 정확히 알고 수용하기
- 노동과 봉사
 - *고립감을 잊고 가치를 찾으려 함



결과

- 사회적 욕망으로부터 전보다 자유로움
 - *미모/학벌/좋은 직장을 허구로 인식함
- 자신과 타인에 대한 시각의 변화를 갖게 됨
 - *부정적 자기 인식을 극복할 수 있게 됨
 - *죄책감으로부터 벗어남
- 내적 갈등이 지속 될 것이라는 것을 인정함

< 모형 2. 닛트의 사회화와 상호맥락에 대한 모형>

니트 현상을 어떻게 볼 것인가에 대한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음.

- 니트현상의 근저에는 사회에 대한 공포가 존재함.

인터뷰에서 나타난 니트 형성의 원인은 매우 다양함. 그런데 니트 상태에 놓여 있거나 니트 상태를 경험한 사람들의 심리 상태나 감정의 근저에는 ‘사회에 대한 공포’가 자리잡고 있는 것으로 보임.

이들이 느끼는 현재의 공포는 지그문트 바우만(2009)이 말하는 ‘유동하는 공포’로 이해할 수 있음. 즉, 부정적인 세계화라 명명되는 글로벌 자본주의의 출현과 관련된 것으로서 자본의 논리가 지배하는 국가와 사회에서 나타나는 인간적인 관계와 사회적 연대성의 감소, 공공성의 쇠퇴, 무한개인책임, 그리고 양극화의 심화 등 사회적 차원의 공포이기에 그 원인을 찾기도 쉽지 않음. 인터뷰 대상자들은 자신들이 겪는 상황의 원인을 근본적으로 ‘부족한 자신’에서 찾고 있었음. 공포의 원인을 내부에서 찾을 경우, 행위자들은 ‘공포를 야기한 구조’에 더욱 예속되고, 그 구조로부터 쉽사리 벗어날 수 없다고 느끼기에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려 하지 않음. 그러므로 니트 상태를 유지하는 것은 공포로부터 자신을 방어하고 보호하려는 최소한의 방어임.

- 니트현상은 우리 사회의 신뢰성의 위기임을 나타냄.

사회에 대한 공포에는 가족과의 관계가 영향을 미치고 있음. 가족 말고는 사회라는 것을 제대로 경험해본 적이 없는 상황에서 가족마저 공포의 진원지가 될 경우, 사회로 진입하는 일은 극도의 두려움과 공포로 다가옴.

가족이라는 가장 친밀한 사회가 일차적인 공포의 진원지가 되고 있는 이유는 부모가 가진 사회에 대한 불안과 사회적인 안전망이 없는 가운데 살아가는 삶, 한번 궤도에서 벗어나면 대열에서 영영 떨어질 것이라는 공포를 전염하고 대물림하기 때문임.

이와 더불어 공공의 영역으로서의 사회의 부재 역시 사회에 대한 공포를 가중시키고 있으며, 이중 노동시장과 이중 현실을 심화시키는 과잉교육 역시 사회로의 진입을 유예, 회피하는데 영향을 미침.

- 일과 노동에 대한 비현실적이고 분절된 사고와 ‘자기 계발하는 주체’, 그리고 ‘대체가능한 노동’

‘재미있고, 의미있는 경험과 직접고 하기 싫은 일이 따로 있다’

‘돈과 연결되지 않는 일이나 노동에 대해 생각해본 적도, 경험해본 적도 없다’

‘결론은 늘 돈이지만 돈에 대해서는 매우 양가적인 감정을 갖고 있다’

‘일과 노동 그 자체에 대해서는 생각해본 적이 없다’

일과 노동에 대한 위와 같은 비현실적인 인식에는 ‘자기 계발하는 주체’ 라는 신자유주의 체제에 걸맞는 노동주체의 출현이 자리잡고 있음.

자기 계발하는 주체는 금융자본주의, 인지자본주의의 새로운 전개방식에 맞는 노동주체의 한 유형임. 창의성으로 무장하고 매순간 위기를 새롭게 변신하는 자본의 모습을 닮고 싶은 주체의 모습. 그러나 실상 많은 사람들이 겪고 있는 일과 노동의 현실은 "대체 가능한 노동"임.

숙련 노동자에 대한 의미 부여는 이미 사라진지 오래고 일은 다른 누군가에 의해 대체될 수 있다는 사실이 불안의 가져 오. "대체될 수 없는 노동"의 현실은 "의미있고 창의적인 일"이라는 환상을 지향하게 함. 일을 의미있는 일과 그렇지 않은 일로 나누고, 의미있고 좋아하는 일을 해야한다는 정언명령은 이러한 맥락에서 생겨남.

- 일과 노동에 대한 새로운 시선과 경험의 필요성

‘일은 짜증도 나고 재미도 있고 지루하기도 함. 일은 그 모든 것이다’

‘해야 할 일이 있고, 누군가는 그 일을 해야 함. 누구도 예외일 수는 없음. 누구는 의미 있는 일만 하고, 누구는 짜증나는 일만 하고 누구는 돈만 버는 일을 하고 그렇게 나누어져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 일은 그렇지 않음’

‘좋아하는 일이나 의미 있는 일이 아니라 지금, 할 수 있는 일을 먼저 시작하자’

‘일의 결과나 의미가 아니라 일 그 자체로 담백하게 보고 경험할 수 있어야 함’
이와 같은 인식과 경험을 할 수 있는 사회화의 공간과 내용이 필요함.

○ 니트현상화 문제의 해결을 위한 대안은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음.

- 더 이상 ‘니트’ 에 초점을 둔 정책에 집중해서는 안 되며 청년일반의 생존권을 보장하는 방향의 정책이 필요함.

니트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는 것은 움직임을 억압하고 앉아서 학습만 해야 하는 교육환경에서 늘어나는 아이들의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ADHD)의 문제를 ADHD를 위한 학교의 건립으로 해결하려는 시도와 마찬가지로. 니트를 위한 정책은 니트를 양산하는 사회구조적 모순을 심화시키고 은폐하는 방향을 지향하게 되고 지극히 개인적인 차원에 머물게 됨.

- 청년기의 성장을 위한 정체감 형성의 과제는 진로교육으로 성립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사회적 준거집단에서의 소속과 탈퇴를 반복하면서 고립, 유예, 무기력, 우연, 오판 등의 기나긴 정체감 확립과정을 사회 속에서 경험할 수 있어야 가능한 것임. 이것은 일, 교육, 훈련, 놀이, 삶이 다 포함되는 과정이어야 하며 국가는 이러한 청년의 정체감 확립을 위한 기초 생존권과 교육 및 훈련의 권리를 보장해주는 역할을 해야 함(구체적인 정책제안은 본문내용 참조).

- 니트현상화가 유동적 자본이 지배하는 사회구조적인 문제가 개인에게 침투되어 ‘공포’와 ‘불신’의 흔적을 남기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라면, 그것을 인식한 개인이 그 흔적에서 벗어나서 자신의 삶을 살기 시작하기 위해서 자각해야 하는 것은 무엇인가. 본 리서치에서는 이러한 과정을 ‘핵심자각과정’이라 정의함.
- 핵심자각과정은 나에게 개인적인 변화가 필요한 그 지점이 바로 사회가 지닌 문제점이 ‘나’라는 개인에게 침투된 지점임을 자각하는 것이어야 함. 다음과 같은 내용의 핵심자각과정은 청년들의 새로운 사회화를 위한 공간과 프로그램에서 다양한 형식과 활동으로 다루어질 수 있음(본문내용 참조);
 - 자격에 대한 자각: 사회적 인간으로서 내가 나의 삶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자격이 무엇인지를 결정하는 권한은 누가 가지고 있는가
 - 불안에 대한 자각: 사회적 진입에 대한 불안은 과연 어디에서 시작된 것인가. 그리고 불안으로부터 벗어나려면 무엇을 시작해야 하는가
 - 나는 ‘니트’ 인가에 대한 자각: 나는 나를 어떻게 설명하고 규정할 것인가
 - 협력과 연대에 대한 자각: 왜 연대를 해야 하며 연대한다는 것이 무엇인가
- 청년들의 새로운 사회화를 위한 사회 안에서의 공공의 영역(공간, 활동, 프로그램 등)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함.(본문내용 참조)

1. 리서치 배경

가. 니트의 문제화

최근 국제노동기구ILO는 한국 청년(15-29세)들 중 19.2%가 니트 상황에 있다고 발표. 이는 OECD국가 중 7번째로 니트 문제가 심각한 일본보다 2배가 많은 수치임. 한국 역시 고용 없는 성장과 늘어만 가는 청년 실업과 사회안전망의 부재 등 사회구조적 문제를 마주한 상황에서 청년 니트화 현상은 청년실업의 주된 요인으로 인식되고 있음.

그러나 아직도 여전히 니트를 일할 의욕이 없는 ‘게으른 청년들’이라는 기존의 사회 통념을 넘어서지 못하고 있으며 개인의 문제로 환원하는 경우가 많음. 또한 국내는 현황 리서치 및 연구가 부재하며, 양적인식과 병리학적 관점에서 우려만 하고 있는 실정임.

청년 니트화 문제 해결 방안으로 정부에서는 취업 지원 프로그램이 실시되고 있으나 한국 사회의 저성장 국면에서 노동 영역에서 이탈되는 청년이 지속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보다 장기적 안목에서 해결 방안이 필요함. 따라서 고용 없는 성장 시대 청년실업, 사회안전망 부재 등 사회구조적 문제로 인한 청년문제로서의 청년 니트화 현상에 대한 리서치가 필요함.

나. 니트현상에 대한 외국사례의 경우

1) 일본의 경우

우리보다 먼저 니트 문제에 주목한 일본의 경우 다양한 방식에서 문제 접근을 하고 있음. 일본의 경우 90년대 초반 버블 붕괴에 따른 경기 침체 속에 청년들의 고용기회 저하로 취업률이 급격히 낮아지면서 프리터와 니트를 양산. 공적인 직업훈련이나 실업보험 제도가 충실하지 않은 일본에서 정사원이 아니면 사회적 권리를 충분히 누릴 수 없기 때문에, 정규적으로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청년들은 사회적 배제인 동시에 사회적 비용을 소모하는 집단으로 인식되었음.

특히 초저출산 고령화 사회에서 경제활동의 주된 세력이 되어야 할 청년층에서 비정규 고용 및 무고용의 상태가 증가하는 상황에 대한 사회적인 위기의식이 높아지면서 이들을 사회불안의 요소로 바라보게 됨. 즉 일하지 않거나 일할 수 없는 청년은 저출산·고령화의 원인으로 이어지며 향후 생활보호자의 증대로 사회적 비용의 증가를 야기시킬 것이라는 위기의식을 갖게 됨. 이러한 위기의식 위에 니트현상을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문제로 인식하고 사회적 대응책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인식과 연구들이 발전하기 시작

- 2012년 일본 총무성 통계국은 니트족을 대상으로 왜 니트족이 되었는가, 니트족이 될수 밖에 없는 이유 등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하였는데 이 조사에서 니트족은 취업을 희망하지만 구직활동을 하지않는 비구직자와 취업자체를 희망하지 않는 비취업희망자로 구분되어 조사되었음.

조사결과 조사대상 니트족 중에서 진정으로 일할 의욕이 없는 10만명을 제외한 나머지 70만명은 다양한 이유들로 인해 니트족이 되었기 때문에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과 효과적인 정책도입이 시급함을 강조함.

- 이와 더불어 일본의 니트 지원 프로그램의 경우 구직과 취업 이전에 심리적이고 사회적인 능력을 회복하는 과제를 제시하며 이들의 인간적·사회적 성장을 도울 수 있는 단계를 마련한 사회적 지원이 이뤄지고 있음. 이는 니트 문제해결이 일자리와 훈련제공으로만 이루어질 수 없음을 시사함.

- 소다테아게 넷

일본 도쿄도 다치가와시를 중심으로 활동하는 NPO법인 [소다테아게]넷은 청년과 그 보호자/관계자 대상 '경제적 자립'과 '사회참가'를 목표로 '청년 취로(就勞) 기초 훈련 프로그램'(잡 트레이닝)을 중심으로 한 포괄적인 지원 실시. '니트 예방을 위한 금전기초교육 프로그램'을 민간금융기관과 공동 개발. 현재 일본 전국 130교에 무료로 수업을 제공.

- 뉴베리

뉴 베리는 일본의 유명한 사회적 기업가 야마모토 시게루가 설립한 NPO법인으로 구직 활동에 소외받는 젊은 청년들을 지원하는 프로젝트와 교육프로그램 제공. 무직자, 중퇴자로 설 곳을 잃은 젊은이들에게 글쓰기 교육을 통해 사회적 자립을 돕는 '진보초 소설 아카데미', 은둔형 외톨이의 자립과 자활을 돕는 인터넷 라디오 방송국 '올니트니폰', 만화가를 꿈꾸는 젊은이들에게 저렴한 주거공간을 제공하여 꿈을 키울 수 있도록 돕는 '토키와장 프로젝트', 중고등학교·대학교·전문학교 중퇴자 예방사업에 힘쓰는 '일본중퇴예방연구소', 삶의 고난을 느끼는 젊은이(16~29세)들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운영.

2) 영국의 경우

영국은 니트 개념의 출발지이기도 하며 현재까지 가장 활발하게 니트 문제에 관한 학술연구물이 산출될 정도로 니트 문제를 심각하게 겪고 있음. 19-24세의 청년 중 약 19.6%(2002년 기준)가 니트 상태. 그 연령을 16-24세로 넓히면 숫자로는 약 백만명 가량이 해당 됨. 2013년 BBC 기사에 의하면 니트 상태의 청년 중 약 1/3 가량은 거의 집을 떠나지 않고 우울과 스트레스에 시달림.

영국은 일본과 달리 그 동안 니트 문제에서 은둔형 외톨이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지

않았으나 이제 니트가 장기화되면서 니트 청년의 1/3이 집에만 머무는 현상이 드러나기 시작했음. 이에 따라 일본의 히키코모리 연구와 활동에 관심을 보이고 있음.

○ 2013년 사전도제 프로그램(pre-apprenticeship program)과 같은 새로운 프로젝트 도입으로 니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있음. 이는 첫 직장을 가지기 전까지의 과정에 도움을 주는 교육과 훈련과정임. 이전에는 일자리 창출과 기술훈련프로그램의 제공이 주였던 것에 비해 이제는 첫 직장에서 일을 하기 위한 수리능력, 문해능력, 관계맺기, 기술훈련 등 첫 고용까지의 경로에 관심을 두는 도제식 프로젝트를 수행하려고 하고 있음. 이는 기존의 일자리 및 직업훈련기술 제공과 같은 방식을 탈피하고 있음을 보여줌.

이와 같은 영국에서의 정책은 사회적으로 배제된 청년들을 다시 사회와 연결시키기 위해서는 일자리가 필요하고, 일자리를 갖기 위해서는 양질의 교육이 필요하다는 토니 블레어 수상의 연설에서 나타나는 바와 같이 일자리 제공을 위한 교육, 훈련의 강화에 초점을 두고 있음.

○ 그러나 이와 반대로 청년 니트의 문제를 새로운 관점에서 다루어야 할 것을 주장하는 흐름도 있음. Ron Thompson(2011)은 청년 니트의 문제를 사회적으로 배제된 사람들에 대한 개인적인 지원을 펴는 정책으로 수행되는 것이 이 문제의 특성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음을 강조하였음. 그는 영국에서의 청년니트 현상은 교육과 사회의 불평등의 영향으로서 생겨난다는 점을 주장하면서 교육과 사회복지 영역에서의 공공성이 줄어들고 개인의 선택권이 강조되는 국가정책에 문제가 기인하고 있음을 지적함.

다. 니트현상에 대한 국내선행연구

남재량(2005)은 한일국제포럼 은둔형 청소년 등 사회부적응청소년 지원방안 국제심포지엄 발표에서 취업 무업자(NEET)를 대상으로 한국의 사회부적응 청소년 취업대책에 관해 논의함. 연구결과로는 비구직 니트가 증가하고 있으며 구직 희망자가 10%에 미치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하면서 장기화되면 은둔형 외톨이가 될 수 있음을 강조함. 또한 고졸이하 저학력과 지방거주 청년의 낮은 취업확률이 니트에서 취업으로 가지 못하는 이유가 될 수 있음을 주장함.

2008년 한국고용정보원에서 수행된 ‘한국형 니트 취업지원 연구’에 따르면 한국형 니트.프리터의 배경으로 취약한 학교 진로교육, 교육과 일의 세계 이행에 대한 사회적 지원의 취약함이 자리 잡고 있다고 제시함.

이와 같은 관점에서 이로미, 박가열, 정연순(2010)은 구직 희망자를 중심으로 청년니트 유형과 특성에 관한 질적연구를 수행하였음. 이들은 구직을 희망하는 청년니트의 특

성을 규명해내려 20명의 니트이거나 경험있는 청년을 대상으로 질적 인터뷰 수행함. 인터뷰 내용을 희망일자리, 구직태도, 미취업주요원인, 일자리선택기준의 요건을 분류한 결과, 구직을 희망하는 니트상태의 청년들을 내성적 위축형, 꿈꾸는 프리터형, 진로미숙형, 수험형으로 구분함. 그리고 이처럼 청년니트 스펙트럼이 다양하기 때문에 각각의 특성에 맞는 진로개발이 필요하며 청소년진로교육이 강화되어야 함을 주장함.

채창균(2008)은 니트를 유휴청년으로 정의하고 15-29세의 이들 집단의 2003년부터 2007년까지의 추이를 분석함.

분석결과 유휴청년집단은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청년 실업자 집단에 비해 저학년, 저연령, 미혼, 청년남자일 확률이 높고, 가정의 경제수준이 낮을수록 유휴청년집단에 속할 확률이 높다고 지적함. 대책으로서는 유휴청년이라는 특정한 집단에 초점을 둔 대책이 필요함을 강조하고 누가 유휴청년인지 파악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함. 또한 고등학교 내에서의 비진학, 대졸자의 미취업자에 대한 교육훈련과정을 강화하고, 개별화된 맞춤형 상담 및 교육프로그램 제공할 것을 제안함. 이와 더불어 분석결과를 토대로 미리 니트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을 막기 위한 니트 위험성지수 개발이 필요함을 주장함.

남재량(2012)는 고졸니트와 대졸니트의 비교분석을 수행함. 연구에서는 청년층 인구의 지속적인 감소에도 불구하고 청년 니트 가운데 비구직 청년 니트의 수가 2011년 100만 8천 명을 기록하여, 연간 기준으로 처음 100만 명을 돌파하였음을 제시함. 특히 청년 비구직 니트의 여성화, 고연령화, 고학력화 현상이 나타나는데, 이 가운데 고학력화가 중요한 특징으로 나타남.

비진학 고졸자, 즉 순수고졸자를 따로 구분하여 보면, 순수고졸 비구직 니트 가운데 그냥 '쉬었음'의 비중이 최근 50%를 넘나들 정도로 높으나, 최근 고졸 채용 증가와 관련되어 감소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순수대졸 비구직 니트의 주된 활동상태는 '취업준비'로서 최근 60%를 상회하고 있고, 2003~2007년의 짧은 기간 동안 이 비중이 20%포인트 이상 증가하여 고학력 니트의 문제가 대두되고 있음을 시사함.

라. 선행연구의 제한점

니트현상에 대한 국내외 선행연구결과와 대책들을 종합해보면 대부분 니트 문제에 대한 현상적 파악에 그치고 있으며 이들이 사회에 적응하지 못한 부적응 청소년, 청년 집단임을 전제하고 있음. 즉, 이들은 학교와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고 진입하지 못한 일부 부적응 집단이지만 이들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만큼 이들에 대한 사회적 차원에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음.

또한 이들은 니트현상을 주로 진로교육과 훈련의 불충분함으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일종의 '진로발달지체'인 상태로 직업세계에 진입하여 문제를 겪고 있거나 진입하지 못

하고 있다는 식으로 접근하고 있음. 말하자면 이를 직업 세계 부적응 문제로 바라보고 근본적으로 학교 교육에서 진로교육이 강화되고 실질화 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함. 즉, 니트상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어떠한 새로운 심리사회적 성장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가에 대한 관점은 부재하다고 볼 수 있음.

이러한 관점은 니트현상을 일부 문제가 있는 ‘부적응’ 청년의 문제로 국한시키고 니트현상을 야기시키는 사회구조적 문제는 배제한 관점이며 따라서 해결책 역시 사회적인 문제집단에 대한 지원 및 대안책의 마련에 국한되어 있음을 알 수 있음. 이는 일본과 영국의 경우에서도 마찬가지라 볼 수 있음.

일본의 경우에는 니트의 문제가 사회적으로 광범위하게 이슈화되고 사회적인 지원이 제공된다는 점에서, 그리고 구직과 취업 이전에 심리적이고 사회적인 능력을 회복하는 과제를 제시하며 이들의 인간적·사회적 성장을 도울 수 있는 단계를 마련한 사회적 지원이 이뤄지고 있다는 점에서는 우리나라와 다르다고 할 수 있으나, 여전히 사회구조적 문제가 개인에게 침투한 현상으로서의 니트를 설명해내지 못하고 있으며 그러한 관점에 근거한 해결책을 고민하고 있지 못하다고 보여짐.

우리나라에서도 2009년부터 ‘취업취약 청년층’을 대상으로 한 종합취업지원 서비스인 ‘청년층 뉴스타트 프로젝트’가 시작되었고 여기에 ‘니트’도 서비스 대상으로 포함되어 있지만, 구직 지원과 취업 알선이 중심이어서 심리적 취약계층에 대한 프로그램 영역의 배려는 여전히 부족한 편임.

따라서 구직 정보 제공이나 취업 알선과 같은 직접적인 취업 지원 이전에 기초적인 심리·사회적 성장을 위한 능력을 길러주기 위한 다각적이고 종합적인 접근이 필요함. 무엇보다 니트현상이 증가할 수 밖에 없는 사회구조적 요인이 개인에게 어떻게 영향을 미쳤으며, 니트가 사회구조적 문제임을 인식함으로써 인해 어떠한 변화와 대안이 가능한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함.

2. 리서치 방향과 목적

가. 문제제기와 리서치의 방향

검토되어야 할 문제 1: 니트 문제는 개인의 문제인가 사회구조적문제인가?
두 관점은 어떻게 통합되어 있는가

- 니트는 사회구조적 문제에 기인한 현상이면서도 동시에 이미 개인의 비/자발적 선택. 그렇다면 그러한 인간행동이 일어나는 맥락을 풍부하게 이해하는 방법은 무엇인가?
그러한 선택 행위주체자의 주관적 체험은 그(녀)의 내면에서 어떤 세상을 만들어 내고 있는가?
그(녀)가 비/자발적으로 만들어낸 세상은 그(녀)로 하여금 어떤 심리적 현실을 환원적으로 경험하게 하는가?
그리고 이러한 경험이 어떤 경로로 집합화되고 어떤/어떻게 사회적 현상으로 보편화되는가?

케이스 1.

홀어머니에 의해 양육된 20대 중반의 한 남학생은 서울시내 명문대학에 입학했지만 학사경고를 거듭하다가 몇 차례의 휴학을 했다. 그는 대학을 다니는 기간에도 사실상 심리적 니트였으며 휴학을 해있는 경우에는 경증의 은둔형 외톨이었다.

그의 문제는 역시 명문대학교에 다니는 형과 어머니의 성공에 대한 강요, 적성에 맞지 않는 전공에 대한 극심한 부담감, 지나친 과보호로 인한 사회와 관계경험의 지체, 가족 자원의 부재로 인한 공허감(아버지 행방불명과 어머니의 경제활동으로 인한 부재)이 주 원인이었다.

이 청년에게 아무리 좋은 일자리가 만들어져서 제공된다 해도 여전히 그의 심리적 철회를 해제시키는 것은 불가능할 것이다.

케이스 2.

또 다른 29세 여성의 케이스이다.

그녀는 두 번이나 대학에 입학했으나 현재 10년째 우울증 약을 먹고 은둔형 외톨이로 살고 있다. 그녀는 오히려 지나치게 일찍 노동과 접함으로써 자존감에 심각한 상처를 입었다. 그녀의 부모님은 중국음식점을 경영했는데, 중학교 때부터 홀 서빙과 배달일을 하면서 같은 학교 친구들이나 선생님을 만났고, 그로 인해 학교에서 놀림을 받고 친구관계도 단게 되었으며, 고등학교 때는 왕따 경험까지 하면서 극심한 우울증을 겪기 시작했다.

○ 리서치의 좌표 설정을 위한 논의

위 두 케이스는 부모님과 가족 환경이 주된 원인이기에 청년 일자리 창출과 기회 제공이라는 사회 경제적 지원으로 해결 될 성질의 문제가 아니라고 볼 수 있음. 하지만 다시 그들의 경험을 더 깊게 따라 가 보게 되면 몇 가지 사회적 맥락과 경제 권력이라는 구조적 문제와 만날 수 있음.

첫 번째 남학생의 경우, 어려운 경제 형편과 아버지의 부재로 인한 가족의 고통을 사회적인 성공이라는 결과를 통해 보상을 받고자 했음. 그들은 경제적 곤란함과 가장의 부재를 통해 사회적 약자로서 끊임없는 유무언의 협박을 받았고 보호받을 수 없다는, 또는 보호 받지 못할 것이라는 심리적 두려움을 경험했음. 이 경우의 청년에게는 건강한 사회적 상징계를 내재화 할 수 있도록 돕는 건강한 어른이나 신뢰로운 가치체계를 다시 학습하는 경험이 필요함.

두 번째 케이스의 경우, 자영업자인 부모님의 사회경제적인 계급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노동에 대한 수치심이 여성이자 청소년이라는 생의 시간대에서 그 민감성이 더욱 확대 강화되었다는 가정을 해 볼 수 있음.

또 하나, 페미니스트 정신분석학자 Susie Orbach의 이론에 따라서 보면, 이 여성은 일하는 몸에 대한 신체의 수치심이 무의식속에 자리 잡고 있을 수도 있음. 그렇다면 이 문제는 단순한 노동의 가치에 대한 문제일 뿐만 아니라 이 사회 전반에 퍼져 있는 여성의 신체에 대한, 더 나아가 남성들까지도 포함하여 자기 몸에 대한 인식의 상태를 자각하도록 돕고, 자신이 원하는 몸을 가지도록 지지 격려하며, 결국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이 되는 과정이 자기 몸을 가지는 과정과 합치되도록 도와야 함.

이러한 문제의식에 비추어 볼 때, 니트 현상을 단지 사회구조적 현상이 개인에게 미친 영향으로만 해석하거나 혹은 개인의 특성에 기인한 문제로만 보는 분리된 관점으로는 문제해결이 어려움.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하이데거의 경험세계에 대한 구분을 들어 본다면 어떤 중요한 단서들을 마련해 볼 수 있을 것임.

하이데거의 구분에 따르면(Four Lived Experience) 그(녀)들이 경험하고 있는 자신들의 몸(Lived body), 살아 내고 있는 시간(Lived time), 감각하고 있는 공간(Lived space), 겪어 내야 하는 환경과 관계세계(Lived others), 이것들을 형성하고 구획하는 심리세계를 이해하는 것이 무엇보다 첫 번째 관건임.

○ 이 관점에서 본다면 본 리서치의 좌표는 ‘총체성’에 대한 관심일 될 것임. 그 총체성은 개인에 대한 총체성 뿐만 아니라 개인이 속한 생태계적 미시, 거시, 외체계도 포함.

검토되어야 할 문제 2: 니트 문제의 해결에 있어서 일자리 창출과 창업지원에 앞서 논의되어야 할 것은 없는가?

본 리서치의 좌표를 총체성에 대한 관심이라고 한다면 비자발적 니트와 은둔형 외톨이를 포함하여, 니트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 예를 들어, 일자리 창출과 청년 창업 지원과 같은 대안은 다소 즉자적이고 대중적인 정책이 될 수 있음.

케이스 3.

자수성가로 성공한 부모님을 둔 한 청년은 고등학교 중퇴이후 몇 년째 방에서 은둔하고 있다가 최근 스스로 세상에 나가기로 결심을 하였다. 세상에 나가기로 결심한 계기에 대해서 청년은 '은둔하고 있어도 괜찮다, 넌 지금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고민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하는 학창시절 가까웠던 교사의 심리적 지원이 큰 도움이 되었다고 한다. 하지만 그동안 부모님은 이런 교사의 지지가 자식을 더욱 나약하게 만들까봐 달가와하지 않았다.

이제 청년은 세상에 나가기로 결심을 하였지만 과연 세상의 어느 곳으로 가장 먼저 나가야 할지를 모르기 때문에 주저하고 있다. 대입준비학원이나 아르바이트를 생각하고 있으나 문제는 그런 곳에서 자신과 세상이 어떻게 처음 만나게 될지 전혀 알 수가 없어서 엄두가 안 난다고 한다.

이 경우 늘 부모님으로부터 능력도 없고 성과도 내지 못하는 쓸모없는 존재로서의 자신을 인식했던 청년은 자신의 생의 최초로 가족이 아닌 타인으로부터 능력을 증명해보이지 않아도 자신의 존재를 수용받는 경험을 하였음. 그리고 그것은 유일하게 청년과 사회를 연결시켜주는 고리가 됨. 이 청년에게는 무엇보다 자신을 부정하지 않아도 관계를 맺을 수 있고 어떠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서가 아니라 고통과 고통에 있는 자신의 존재 자체가 이해받는 경험이 필요함.

이제 청년은 사회로 진입하고 싶어 하지만 사회적 존재로서 자신이 어디에 어떻게 출현해야 할지를 몰라서 여전히 철회하고 있음. 사회로부터 자신의 존재가 인식되고 자신이 사회를 인식할 수 있는 상호작용을 시작하는 청(소)년에게는 신뢰할 수 있는 관계를 바탕으로 한 탐색과 실험의 공간이 필요함. 그러나 우리 사회 어느 곳에서도 사회적 인간으로 탄생하는 청(소)년들에게 제공되는 안전한 공간은 없음. 우리 사회의 시스템과 그와 맞물리는 사회적 가치는 실패를 개인의 책임에만 환원시키는 불안과 공포를 제공하고 있을 뿐이며 학교 역시도 예외가 아님. 따라서 이 청년에게는 학원에서 입시공부를 시작하고 아르바이트를 시작하기 전에 자신의 심리사회적 철회문제를 지닌 채로 사회적 인간으로의 성장을 시작할 수 있는 사회 안에서의 안전기지가 필요함.

○ 만약 니트 상태에 있는 청년들에게 이러한 사회적 안전기지가 필요하다면 우리는

과연 어떤 사회적 안전기지를 어떻게 마련해야 할 것인가. 사회적 안전기지의 역할은 무엇이며 어떤 형태를 갖는가. 이외에 우리에게도 무엇이 필요한가. 구체적인 해결을 위해 우리는 니트에 대해 어떠한 개념이 더 필요한 것인가.

이것은 앞서 말한 총체성을 좌표로 한 니트 리서치에서 수행되어야 할 중요한 과제가 되어야 할 것이며 이에 따라 지금까지와는 다른 보다 생태학적인 관점에서의 프로그램 개발이나 정책적 대안이 제시될 수 있을 것이다.

○ ‘일’에 대한 새로운 담론의 필요성

오랫동안 니트 지원 사업을 벌여온 일본 NPO들은 니트들이 산업화 시대 일과 근로개념의 희생자라는 점을 지적하고 있음. 이들은 사회에서 통용되는 엄격한 근로윤리, 즉 노동공간과 생활공간의 분리, 일과 놀이의 분리 등을 견뎌내기 어려워 함. 즉, 이들은 일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과거의 방식으로 일할 수 없는 사람들이라는 점을 시사함. 일본의 경우 경기 침체가 완화되는 상황에서도 프리터와 니트족이 줄지 않은 현상에서도 이것은 확인되고 있으며 이는 청년층에서 일과 노동에 대한 생각이 달라지고 있음을 반증하고 있음.

결론적으로 사회적으로도 노동시장이 유연화되어 고용 안정성이 떨어지고 정규직이나 상용고용 형태가 줄어들면서 과연 산업화 시대에 통용되었던 일의 개념이나 가치관을 바꿀 필요는 없는 것인가 하는 문제를 제기할 수 있음. 즉, 한국의 경우에도 단순히 니트를 ‘문제집단’으로 바라볼 것이 아니라 이들이 그동안 우리 사회가 ‘정상적’이라고 여겨왔던 ‘일’과 ‘노동’의 담론에서 벗어나 있는 사람들일 수 있다는 관점으로 인식할 필요가 있음. 그렇다면 ‘일자리 창출’을 당연한 해결책으로 제시하기 이전에 일에 대한 새로운 인식과 노동을 바라보는 새로운 접근방식에서 다각도로 분석한 연후에 대안을 도출하는 시도가 바람직한 것은 아닌가.

따라서 본 리서치는 위의 문제의식에 근거하여 연구의 방향을 설정하고 다음과 같은 리서치의 목적을 가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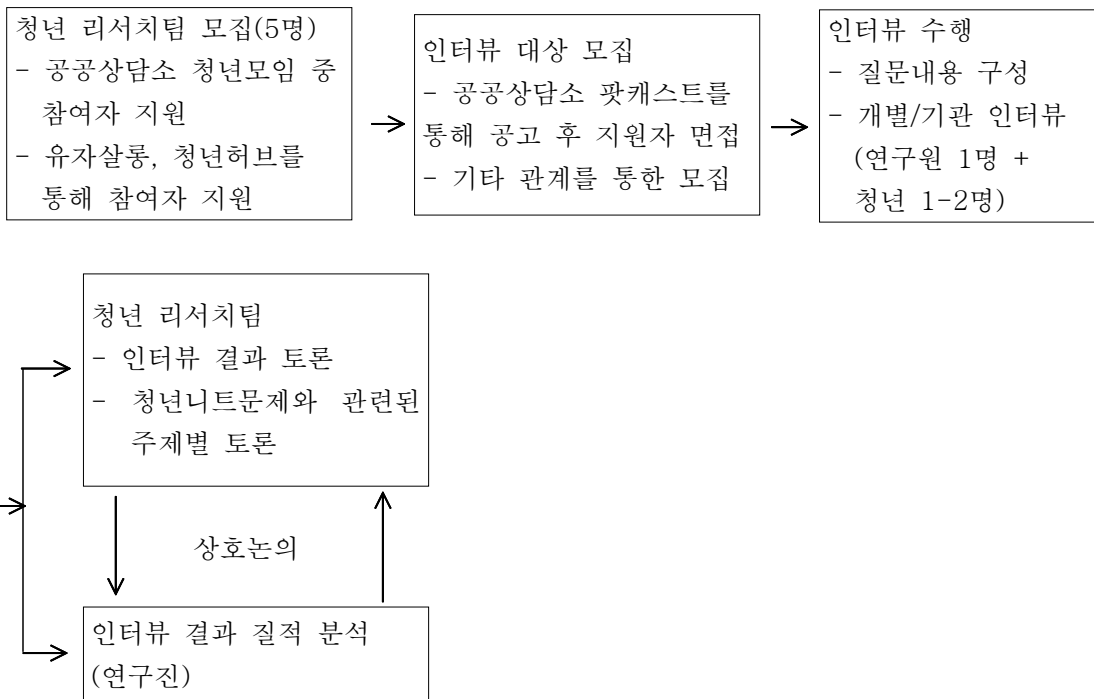
나. 리서치 목적

- 니트현상을 둘러싼 사회구조적인 문제와 개인적인 문제의 통합구조를 밝힘
- 니트문제의 생성, 현상, 변화를 이해할 수 있는 설명모형
- 니트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적 대안의 구상

3. 리서치 방법과 수행

가. 리서치 디자인

- 본 리서치는 과거 니트 경험이 있거나 현재 니트 경험을 하고 있는 사람, 혹은 그 가족들을 대상으로 한 개별 면접조사를 수행하고 면접결과에 대한 질적연구 분석방법을 수행함.
- 이와 더불어 니트상태를 직접, 간접적으로 경험한 20대 청년 리서치팀을 구성하여 이들과 함께 리서치 주제에 대한 토론 리서치팀을 수행하며 개별면접과 기관방문 면접을 공동으로 수행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도 토론함.
- 개별면접 이외에 청년 니트문제와 관련하여 각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기관을 직접 방문하여 니트현상에 대한 현실적인 대안에 관하여 조사하고 논의함. 이 과정 역시 청년 리서치팀 구성원들과 함께 수행함.
- 리서치 디자인



<모형 1> 리서치 디자인

나. 인터뷰 수행

1) 인터뷰 대상 및 진행과정

- 개별 인터뷰에는 19세 부터 20대, 30대를 대상으로 총 13명이 참여하였으며 가족 인터뷰에는 5가족이 참여하였음. 인터뷰는 2013. 10. 20 - 2014. 12. 31에 걸쳐서 수행되었으며 전 과정은 공공상담소 연구진과 청년리서치팀 구성원이 함께 수행하였음.
- 인터뷰는 공공상담소 연구진의 상담센터에서 수행되었으며 일부는 인터뷰 참여자의 주거지역 근처로 방문하여 수행되었음. 개별 인터뷰는 1시간-2시간 정도로 소요되었으며 반구조화된 질문에 대해 자유로운 구두응답 방식으로 진행되었음.
- 기관방문은 다음과 같은 기관을 대상으로 수행되었음.
 - 00은 대학 연구소(구로지역담당 청년활동가)
 - 노원 청소년자활지원센터(활동가)
 - 시흥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드림 프로젝트(센터소장)

2) 질문지

질문지는 다음과 같이 구성되었음.

<표 1> 질문지

질문	주제	구체적인 질문의 예시
1	하루일과	하루를 어떻게 보내고 있나요? (식사나 수면 등이 규칙적인가 등) 그 중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것은 무엇인가 (게임, 잠, 드라마 시청 등등) 가족과 식사를 하는지, 대화, 외출을 하는지 등
2	건강	현재의 건강 상태는 어떤가요? 특별한 병이나 질환이 있는지, 약을 먹고 있는지요? 몸에 문제가 있다고 느끼지만 병원에 가지 않는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지요?
3	현재상태의 시작과 변화과정	현재와 같은 생활방식을 언제부터 시작했나요? 어떤 계기가 있었나요? 현재와 같은 생활을 하면서 본인에게 어떤 변화가 있었나요? 가족의 평가나 가족과의 관계에서 달라진 점은? 친구, 이웃과 사회적 관계는 어떻게 달라졌나요? 현재의 생활에 만족하고 있나요? 그렇다면/ 또는 그렇지 않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4	자신에 대한 인식	내가 보는 나, 가족이나 친구가 보는 나, 사회에서 보는 나를 비교한다면 어떻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예를 들면 사람들에게 '나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다'라고 표현한다면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5	달라지고 싶은 점	현재 내 모습 중에서 달라지고 싶은(달라져야 한다고 생각하는)것이 있다면? 달라지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나요? 내게 무엇이 있거나 내가 무엇을 경험할 수 있다면 변화를 시도할 수 있을 것 같은가요? 달라지고 싶기는 하지만 어려울 것이라고 느낀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6	니트에 대한 의견	니트(Not in Education, Employment or Training)라는 사회적 규정에 대해서 어떤 느낌이 듭니까? 그 설명이 현재 당신의 상태를 설명하는데 적합하다고 생각합니까? 적합 혹은 부적합의 이유는? 어떤 용어가 되었든지 당신의 상태를 사회적으로 규정하는 것이 당신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생각하나요?
7	일과 직업	당신은 현재 일하지 않고, 직업을 갖기 위해 어떤 교육을 받지 않고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하거나 할 수 없는 이유는? 일을 하고, 직업을 갖는 것에 대해 당신은 일반적으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나요? 당신은 부모님이나 다른 사람들의 일하는 모습, 직업이나 돈을 버는 방식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요? 당신도 그렇게 하고 싶은가? 동의 혹은 반대하는 이유는?
8	사회생활	현재 당신은 일을 하거나 교육을 받고 있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생활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나요? 동의 혹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당신은 사회생활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 혹은 사회생활을 하지 못하는 걸림돌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내 자신과 관련된 이유, 가족이나 친구, 이웃과 관련된 이유, 사회제도나 문화와 관련된 이유, 기타 돈이나 건강, 환경에서의 이유)
9	세상과 미래	세상에 대한 당신의 이미지는 무엇 또는 어떤 것인가요? (예, 세상은 무섭다, 두렵다 등등의 느낌) 그런 생각이나 느낌을 가지는데 가장 큰 영향은 어디서 받은 것 같은가요? 당신의 미래에 대해서 어떤 상상을 하고 있나요? 어떻게 살고 싶은가요? 당신이 가진 희망과 포기는 무엇인가요?
10	문제해결	현재 사회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니트 문제 해결을 위한 제도적 대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나요? (우리나라 및 외국의 시도사례 설명)

	<p>만약 당신이 현재 고민하고 있는 것을 비슷한 상태에 있는 사람들과 만나서 같이 할 수 있다면 어떠할 것 같은가요? 만약 그런 모임이 있다면 거기서 무엇을 느껴보고 경험해보고 싶은가요? 나의 문제가 개인적인 문제만이 아니라 사회의 문제라고 생각해본 적이 있나요? 있다면 어떤 계기로 어떤 생각을 했고 없다면 사회적 문제라는 관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나요?</p>
참고	<p>- 가족인터뷰의 경우 니트 상태에 있었거나 현재 있는 사람을 가족 구성원으로 두고 있는 입장에서 생각과 감정, 일상생활, 어려운 점, 도움이 필요한 점, 문제의 원인이라고 생각하는 점 등을 자유로이 질문함. - 기관인터뷰의 경우 현재 하고 있는 활동의 시작, 지향점, 내용, 동기, 활동의 결실과 어려움, 필요한 지원과 인식의 문제 등에 대해서 자유로이 질문함.</p>

3) 인터뷰 집단의 특성

<표 2> 인터뷰 집단의 특성 I

성별		연령			주거지		거주형태(가족과 동거 및 경제적 자립여부)			
남	여	10대	20대	30대	서울경기	그외 지역	주거, 경제 독립	가족동거 경제자립	거주독립 경제적 지원받음	가족동거 경제적 지원받음
4	8	1	7	4	10	2	5	1	2	5
*7	10	1	10	6	12	6	5	1	3	9

*줄은 가족 인터뷰 대상자를 포함한 숫자임

<표 3> 인터뷰 집단의 특성 II

학력			니트에 대한 생각		인터뷰 참여 방식
고졸이하	대중퇴	대졸 이상	자신이 니트라 생각하거나 그 밖의 적절한 용어 미발견	본인은 니트라 생각하지 않거나 벗어났다고 생각	팟캐스트 공공상담소를 통해 지원 (기타권유)
4	4	4	5	7	7(6)
*7	5	5	해당사항 조사하지 못함		8(10)

*줄은 가족 인터뷰 대상자를 포함한 숫자임

다. 청년리서치팀

○ 청년리서치팀은 2013. 11. 18 - 2014. 1. 21까지 총 9회에 걸쳐서 진행되었으며 19세 청년 1명과 20대 청년 4명으로 구성되어있음. 이들은 다양한 이유로 인해 과거 또는 현재 아르바이트 형식을 제외한 다른 교육, 훈련, 고용관계에 속해있지 않았거나 않고 있으며 본 리서치의 인터뷰 대상이기도 하면서 직접 인터뷰어로서 면접과 결과분석에 참여하였음.

○ 청년리서치팀 진행과정과 내용은 다음과 같음.

<표 4> 청년 리서치팀

모임회기 (일시)	참석자	주요쟁점	토론내용	소감
1회기 2013. 11/18	청년 리서치 팀 4명	니트와 가족의 상관관계 - 가족이 니트를 만든다?	두 명의 가족인터뷰 뒤, 니트와 가족간의 갈등이 초래하는 문제점에 집중	가족이 니트 현상을 부추기는 일차원적인 요소라는 것에 공감, 그러므로 해결책도 가지고 있다고 믿음
2회기 2013. 11/25	청년 리서치 팀 총 5명	니트의 정의 -누구를 니트로 정의해야 할까?	두 명의 개인 인터뷰 뒤, 그들의 자유로운 삶에 주목하며 니트란 무엇인가라는 고민을 하게 됨	개인의 성향과 자유를 고집하는 니트의 당당함에 니트라는 정의가 과연 맞는 것일까 그 자체가 의아해짐

3회기 2013. 12/2	청년리서치 팀 5명 연구진 1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터뷰하면서 공감 이 된 부분과 자신의 예상이나 생각과 다른 점 발견. - 일이 과연 니트에서 벗어나게 하는가 --> 일에 대한 관점의 차이발견 - 변하게 되는 계기에 대한 관점의 차이발견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니트 기간 동안 느낀 외로움, 이해받지 못하 는 느낌, 두려움 등 공 감 - 니트의 고학력, 가족 의 입장에서 본 니트, 사회적 관점에서 해석 하는 니트 문제 등은 새로운 관점경험 -일에 대한 다양한 관 점 공유 - 변해야겠다고 생각 한 계기에 대한 다양 한 경험 나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이해해줄 사람을 가져 본 적 없었던 니트의 처지에 공감함 -일과 노동을 니트 문 제에 적용하기 위해 어 떤 과정이 필요할지 고 민함
4회기 2013. 12/11	청년리서치팀 5명, 연구진 2명	하류지향 (우치다 타츄루) 일부 읽고 토론	청년들은 일과 노동을 어떻게 생각하나 왜 일과 공부에 목적, 대가부터 생각하나	공부와 노동을 소비하는 행위로 받아들이는 세대 현상에 대한 공감, 니트 의 돌봄은 어떻게?
5회기 2013. 12/18	청년리서치팀 5명, 연구자 1명	청년리서치팀 이야기	청년리서치팀을 하면 서 느끼는 점	일상생활을 둘러싼 불안 을 공유할 수 있는 공간 과 기회조차 청년들에게 는 없다.

6회기 2013. 12/23	청년리서치팀 5명, 연구진 2명	사회는 무엇?, 나는 현재 사회에 속 해 있다고 생각하나?	기관방문 인터뷰 소감	일이 꼭 의미가 있는 것 이어야 하나, 의미 있고 재미있는 일이 아니면 우리는 또 다시 실패한 것일까, 사회와 우리는 왜 동떨어져 있고 그것 을 어떻게 연결시켜 줄 수 있는가
7회기 2014. 01/03	청년리서치팀 5명, 연구진 3명	니트 리서치와 나	청년들이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것을 꺼리는 이유, 우리는 무엇을 두려워하는가	성과주의와 개인의 성 실과 노력만이 요구되는 사회에서 뒤쳐지면 따라 오는 열등감은 청년들을 더 움츠러들게 만들
8회기 2014. 01/08	청년리서치팀 5명, 연구진 1명	-지난번 청년 리서치 팀에 대한 평가 - 마지막 과제를 글로 정리	- 청년리서치팀의 공 통의 분모가 있는 사 람들끼리 모였는데도 왜 서로 혼자 있는 것 처럼 느껴질까	자신의 감정을 그대로 표현하자(난감함). 서로 가 생각하는 사회나, 일 같은 주제뿐 아니라 일 상생활의 난감함을 이야 기하는 것부터 시작.
9회기 2014. 1/21	청년리서치팀 5명, 연구진 1명	무엇을 알았고 무엇 이 남은 과제인가	각자의 키워드에 대한 토론과 최종결과보고 서에 대한 의견	모임을 끝내면서 솔직하 고 치열한 자기생각 드러내기와 토론

○ 청년리서치팀을 통해서 청년들은 청년니트현상에 대하여 각기 자신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주제어를 선택하여 설명하였음.

A: 눈, 공동, 협력, 진짜 갈등, 확신은 자기 자신에게서 나오는 에너지

“남이 나를 보는 눈을 중요시했었는데 이제 내가 나를 이해하는 눈, 그리고 타인을 배려하고 집단안의 관계에서의 나의 책무를 볼 수 있는 눈을 생각하게 됨. 의미있는 일과 의미 없는 일, 개인적인 삶과 니트모임활동 등, 이런 것이 분리되어 둘 중 하나를 선택하는 문제가 아니라는 생각을 하게 됨. 내 자신과 내 자신의 성장, 나를 둘러싼 주위와 사회의 문제를 내가 스스로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도록 의식하는 과정이 필요함”

B: 관계, 놀이, 일, 사회적 문제, 잠재적 가능성, 나에게 대해 객관적인 시선, 생존권의 사전적 의미

“과거 니트문제를 개인적인 경험에 근거해서만 생각하는 관점에서 사회적인 관점으로 확장하고 있다는 느낌이지만 혼란스러움”

C: 겉, 니트용어 폐기, 연대의 어려움

“부모와 사회의 기준에 맞추지 못할까봐 겉이 나서 달리다가 포기하고 넘어진 경우가 니트, 니트라는 용어의 폐기가 곧 그 기준에 맞추는 것을 그만두는 용기임, 니트는 사회구조적 문제이나 연대하는 것은 정말 낯것이고 어려움”

D: 무념무상, 부모를 닮아가는 내 모습 인식, 원래 내 모습 찾기

“개인이나 사회나 문제를 보는 시각이 조금 넓어졌으나 아직까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지내다보면 하고 싶은 일이 생길 거라 기대함. 그리고 부모의 모습 중에서 나도 모르게 닮아가고 있는 논리적이고 이성적이고 평가하는 특성에서 벗어나 원래 내가 가지고 있던 감성적이고 감각적인 특성을 살려서 내 모습대로 돌아가야겠다고 생각함”

E: 일을 할 수 있는 학력제한철폐, 책임지는 교육

“신체를 사용하는 노동을 하면서 여러 어려움을 이겨냈기 때문에 일을 하고 싶은데 학력제한 때문에 어려움. 기술이던 교육이던 완전히 익힐 때까지 한 가지를 끝까지 책임지고 가르치는 교육을 필요함”

○ 이와 같은 청년리서치팀의 활동내용과 인터뷰 결과에 대한 질적 분석을 통하여 리서치의 결과를 도출하였음.

4. 리서치 결과

청년리서치팀 활동내용, 개인과 가족 인터뷰의 결과를 질적으로 분석한 결과를 아래와 같은 두 층위에서 설명하고자 함.

- 먼저 근거이론에 기반한 질적분석을 통하여 사회적으로 니트라고 불리우는 상황에 처하게 된 원인, 현재의 상태, 그 상태에 변화를 주는 요인, 개인과 외부의 요인의 상호작용을 통한 변화의 결과 등의 과정을 모형으로 설명하고자 함. 이 과정은 개 개인이 처한 다양한 상황과 경험들에 근거하여 현재 나타나고 있는 공통적인 현상을 둘러싼 인과적 조건, 맥락적 조건, 중재적 조건을 밝히고 그 조건들이 어떤 맥락에서 상호작용을 하여 변화의 결과로 이어지는가 하는 사회화의 과정을 밝히는 것임.
- 다음으로는 위에서 맥락적 조건에 해당하는 사회구조적 문제들에 초점을 맞추어 그러한 요인들이 개인에게 어떻게 침투하여 니트라는 현상을 낳게 하고 있는지, 그리고 개인은 그 과정에서 어떠한 침투의 흔적을 경험하게 되는가를 분석하였음. 이 해석을 통하여 결론적으로 니트현상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를 설명하고자 함.
 - ‘니트’의 생성, 현상, 변화의 과정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가
 - 니트현상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가. 니트의 사회화와 상호맥락에 대한 모형개념화

본 리서치에서는 근거이론의 관점에서 인터뷰를 질적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모형을 개념화할 수 있었으며 모형을 위한 인터뷰 내용의 범주화는 아래 표에 제시되어 있음.

인과적조건

- 불신의 근원지로서의 가족
- 사회적 진입을 위한 시도의 좌절



현상

- 맥락적조건**
- 참여자 상태에 대한 가족들의 극단적 대응
 - * 무지와 무관심
 - * 계속되는 압력과 기대
 - 사회경제적 좌절
 - * 불안정 고용
 - * 계획의 실패
 - 사회적 관계맺기의 좌절
 - *연애/우정/동료관계 좌절
 - 사회적 이중메시지로 인한 혼란
 - *착취와 경쟁의 운상
 - *이겨내고 성장하라는 요구

- 비합리적 정서 갈등 경험
 - *죄책감/무가치/중증의 수행불안
- 증상으로 드러나는 공포와 불안
 - *우울증/공황장애/대인공포/대인기피
- 시도와 포기의 반복
- 인터넷으로의 철회
 - *가장 안전한 현실 도피처

- 중재적조건**
- 심리적 지지/지원
 - *전문상담가 상담
 - *온라인 자원 이용
 - *심리학 서적
 - 사회적 관심과 지지집단
 - *종교단체, 다단계 등
 - 가족의 관심과 기다려줌



작용/상호작용 맥락

- 개인이 되려 노력하기
 - *부모와 분리하기
 - *자신의 욕구에 충실해지려 하기
 - *자기만의 사회적 공간을 만들려 함
- 자신을 돌보는 것에 관심을 가짐
 - *몸과 감정을 돌보기
 - *증상을 정확히 알고 수용하기
- 노동과 봉사
 - *고립감을 잊고 가치를 찾으려 함



결과

- 사회적 욕망으로부터 전보다 자유로움
 - *미모/학벌/좋은 직장을 허구로 인식함
- 자신과 타인에 대한 시각의 변화를 갖게 됨
 - *부정적 자기 인식을 극복할 수 있게 됨
 - *죄책감으로부터 벗어남
- 내적 갈등이 지속 될 것이라는 것을 인정함

< 모형 2. 닛트의 사회화와 상호맥락에 대한 모형 >

<표 5> 사회적 맥락 모형과 범주화

맥락	범주	개념
<p>인과적 조건</p>	<p>- 불신의 근원지로서의 가족</p>	<p>-최초의 사회적 긴장과 두려움으로서의 부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머니 우울 아버지 알콜. 부모의 갈등. * 어머니 가출, 아버지 도박 * 아버지의 알콜중독과 우울증 * 부모의 오래된 냉담과 갈등 * 부모의 이혼, 어머니 우울증 <p>-가족의 기대와 요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집안의 유일한 엘리트 * 힘든 얘기하면 부모님이 싫어함. 부모님을 돌봐야 한다고 생각 했음. * 고3때 힘들어서 그만두고 싶었으나 반장이 되어서 부모님이 너무 좋아하셨음. 공부 잘하는 언니에 비해 항상 못했는데 반장이 되니 부모님이 너무 좋아하셔서 그만 둘 수가 없었음. * 집안에서 장손인 셈인데 여자여서 같이 사는 할머니의 실망을 샀음. <p>-어머니와의 지나친 애착 또는 무애착관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머니의 팔시와 무관심. * 대변에서 피가 나와서 힘들다고 전화하자 깔깔 웃으면서 ‘왜 피가 나와?’라고 말해서 만정이 다 떨어짐. * 어머니는 항상 바깥일로 바쁨. * 고3때 정신과에 가게 됐는데 엄마가 장사해야 한다고 가 버려서 병원에 혼자 갔음. * 딸이 결혼하기를 바라지 않음. 딸과 같이 얘기하고 같이 지내고 싶어함. * 어머니 가출로 인해 관계 맺기가 쉽지 않았음. * 어머니가 자식의 고통을 감당하지 못하는 듯. <p>- 가족의 사회경제적 좌절</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이엠에프로 인한 경제적 곤란함 경험 * 부모의 사업실패로 가족들이 신용불량자가 됨
	<p>- 사회적 진입을 위한 시도의 좌절</p>	<p>- 첫 사회적 시도의 좌절</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교 졸업 후 공공미술 프로젝트에서 교수의 행태와 그 바닥의 생리를 알고 난 뒤에 뭘 해야 할 지 모르게 됨 * 유학 준비하다가 집안의 경제사정 때문에 불가능함을 알고 방향을 잃음 * 아무리 노력해도 학벌로 맺어지는 관계를 넘을 수 없음. 치열한 생존 경쟁에서 탈진됨, 너무나 비인간적인 금융세계에 환멸 느낌, 자본주의의 가장 더러운 돈놀이 시장과 부동산 시장에서 더 견딜 수 없음. * 잡지사에서 일했는데 사장이 너무 힘들게 해서 그만둬, 지역신문사에서 6개월 근무 후 그만둬. 모두 연애 문제와 맞물리면서 그만 두게 됨. * 건강이 안 좋아져 직장을 그만두게 되고 구직기회 놓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친구관계: * 초4때 전학갔는데 친구들이 무시하고 따돌림. * 한명의 친구에게만 집착하고 어머니를 투사함. 그 친구를 잃을까 불안함. * 고등학교에서는 친구들이 아니라 경쟁자. 선생님들도 경쟁을 부추기고 과도하게 아이들을 잡았음.
현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합리적 정서 갈등 경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죄책감 * 모든 것이 내 잘못이고 내가 너무 못나서 그런거라 믿음 * 내내 자책으로 시간을 보냄 *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가를 찾느라 신경을 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증상으로 드러나는 공포와 불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울증 또는 대인 공포(기피) * 힘들 때면 밖에 나가면 사람들이 다 쳐다보고 찌려보고 욕하고 한심하게 보는 것 같아서 불안 초조. 어떤 때에는 일하러 갔다가 갑자기 공포가 밀려들면 가방과 옷도 그대로 놔두고 뛰쳐 나오기도 함. 지금도 대인공포는 심한 편 (미용실, 마트 같은 곳도 혼자 못감). * 번역일이나 소규모 집단에서 일하는 것을 선호 * 10년 째 공황장애(약 복용). 버스, 자가용 못 탑. * 제대로 하지 못하면 어떻게 하나, 이걸 해낼 수 있을까하는 생각, 두려움과 불안이 함께 온다. (완벽주의) * 외출이 되게 두려웠음. 오기로 밖에 나가고 사람들 눈 피하지 않으려고 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도와 포기의 반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살 * 20대 초반에 지하철에서 뛰어내리기도 하고, 고교때는 자해도 함. 30대가 되어서 내가 만약 자살하면 60대 부모님이 너무 힘들어 할까봐 그런 행동은 잘 못할 것 같음. * 그때는 죽는 것만 생각했음, 어떻게 하면 잘 죽을까, 집에만 있으니까 더 다운이 되는 것 같음. * 부모님 돌아 가시면 그냥 자살하던가 해야겠다고도 생각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터넷으로 철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फल레이션의 연속 * 하려고 마음먹었다가 포기한 적이 수도 없이 많음 * 머리로는 해야한다고 생각하지만 자신이 없었음 * 뭔가를 해볼까 싶다가도 모두 두려워서 할 수가 없을 것 같았음 * 한 두 번 해보다가 결국 안하게 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장 안전한 공간, 온라인 * 인터넷은 가장 좋은 소일거리 * 피씨방에 가면 나와 같은 사람들이 많아서 동질감느낌 * 온라인 커뮤니티가 주는 소속감. * 하루 종일해도 질리지 않는 게임
맥락적 조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참여자의 상태에 대한 가족들의 극단적 대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니트가 되기 전 상태에 대한 가족들의 무지 * 가족들은 아직도 내가 정신과에 다니는지 모름 * 자살을 시도하기도 했고, 정신이 붕괴될 지경이었지만 가족들은 몰랐음. 오히려 집에서 나가서 혼자 살면서 더 해

		<p>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족들에게 자신의 상태를 알려도 알아 줄 것 같지 않았음. <p>- 아무것도 안하고 있는 것에 대한 가족의 극단적 대응</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무것도 안하고 있는 것에 대해 가족들은 모름 * 가족들은 내가 아무것도 안하고 있는 줄은 몰랐음. 공부라도 하고 있는 걸로 생각함. 고시공부한다고 대충 둘러대고 실제로 몇 달해보려고 했으나 잘 안됨. * 학교 자퇴하고 집에 있는 것을 아버지는 1년 동안 몰랐음. 어머니는 동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머니가 계속 뭐라도 해야 하지 않냐고 압력 * 원래 회사 그만두고 어머니의 식당을 같이 하려 했는데 오히려 취직하라고 아버지가 식당을 처분해 버려서 할 일이 없어졌음. * 부모님이 일년 지나면서부터 뭔가를 해보라고 끊임없이 이것 저것 제안함. * 자퇴하고 집에 있는 걸 알고 아버지는 굉장히 속타했으나 직접적으로 개입하지는 못함. 어머니는 학교시스템에 부정적이라서 동의하고 방치하다 시피 함. <hr/> <p>- 불안정 고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취직한 직장은 근무, 급여 모두 열악해서 괴로웠음 * 취직하고 몇 달 뒤 권고사직 됨 * 원했던 직장에 취직하지 못해서 알바 진전 * 유학계획이 었나가고 길을 잃음 * 모두 비정규직이고 고용이 불안해서 항상 안정된 느낌으로 살지 못함 <hr/> <p>- 연애/우정/동료관계의 좌절</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애실패로 직장도 그만둠 * 친구가 없거나 한 두 명 정도 * 너무 고립되어 있었지만 고립되었다고 느끼지도 못했음 * 연애는 생각도 못해봤음 * 돈이 없으니 친구를 만나기도 어려움 <hr/> <p>- 사회적 이종메세지로 인한 혼란</p> <p>- 착취와 경쟁의 온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장은 몇 달째 봉급도 주지 않고 온갖 일을 다시킴 * 특출나게 잘하지 않으면 원하는 일을 얻을 수 없음 * 눈에 띄이기 위해서는 엄청난 노력이나 스펙이 있어야 함 * 학벌로 모든 것이 다 결정나는 세상 * 자본주의가 근본인 세상이니 결국은 잘 속이는 놈이 장땡 <p>- 이겨내고 성장하라는 요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약한 사람이 도태된다는 선생님의 얘기 * 결국 네가 노력을 안해서 그렇게 된 것이라는 사회적 메세지 * 다른 애들은 좋은 직장에 잘만 취직하더라는 어른들의 질책 * 젊은 놈이 패기가 없고 정신력이 약하다는 질책
--	--	--

<p>중재/지 지적 조 건</p>	<p>- 심리적 지지/지원</p> <p>- 사회적 관심과 지지집단</p> <p>- 가족의 관심과 기다려줌</p>	<p>- 심리학적 도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심리학 서적의 탐독 * 심리학 관련 인터넷 방송(예 - 공공상담소/강신주 다상담) <p>- 전문적인 도움과 조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담 * 증상의 정확한 병명알기 <p>- 현실관계의 도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종교단체의 소집단 활동 * 조밀하게 관계를 맺어 관심을 주고 받는 경험(예 -다단계 판매조직) <p>- 가족의 무언의 지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잔소리 전혀 하지 않고 밥 챙겨 주시지만 2년.
<p>상 호 작 용</p>	<p>- 개인이 되려 노력하기</p> <p>- 자신을 돌보는 것에 관심을 가짐</p> <p>- 노동과 봉사</p>	<p>- 가족과 분리하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모의 요구에 더 이상 영향받지 않으려 노력 * 부모의 가치를 자신의 것과 구분하려 함 * 부모님과 화해하기를 포기함 <p>- 자신의 욕구에 충실해 지려하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해보기 * 분노를 안전하게 표현하기 * 작은 돈을 들여서라도 원하는 것을 사기 <p>- 자기만의 사회적 공간을 만들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걸어서 갈 수 있는 거리에 할 수 있는 일을 만들기 * 책을 읽어도 도서관에 가서 읽으려 함 <p>- 몸과 감정을 돌보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안에서라도 운동을 시작함 * 요리를 배우기 * 산책을 규칙적으로 하려고 노력했음 * 분노를 표현하려 노력 * 욕 노트를 씀 * 병원치료를 스스로 받음 <p>- 자신의 증상에 대해 정확하게 알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오래된 자신의 증상을 전문가의 도움으로 알게 됨 * 전문상담 등을 통해서 도움을 요청함 <p>- 고립감을 잊고 가치를 찾으려 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을 해서 돈을 벌어야 겠다는 생각을 하게 됨 * 자신이 할 수 있는 봉사활동을 시작함 * 생존할 수 있을 만큼의 수입은 자신이 벌기 위해 노력함
<p>결과</p>	<p>-사회적 욕망으로부터 전보다 자유로움</p>	<p>- 미모/학벌/좋은 직장을 허구로 인식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결과적으로 히키코모리 생활 덕분에 훨씬 더 행복해졌다고 느낌. * 자신이 가졌던 욕망이 허상임을 알고 더 이상 그것을 추구하지 않게 됨 * 예뻐지기, 좋은 직장취업하기 등은 모두 자신을 설명할 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하려고 함 * 학벌도 직장도 결혼도 모두 허상-행복의 조건이 아님을 깨달음

	<p>-자신과 타인에 대한 시각의 변화를 갖게 됨</p>	<p>- 부정적 자기 인식을 극복할 수 있게 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신과 남들을 대하는 시각이 180도 달라졌음 * 인간성을 많이 회복한 것 같다고 느낌 * 직장이 있고 경력을 쌓아나가도 만족하는 사람들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됨 <p>- 죄책감으로부터 벗어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흉악범죄를 의도적으로 저지르는 것 말고 세상에 잘못된 건 없다고 자신에게 말 할 수 있게 됨 * 내 잘못이 아니라고 자신할 수 있게 됨 * 네 잘못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무시할 수 있게 됨
	<p>- 내적 갈등이 지속 될 것이라는 것을 인정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상이 쉽게 바뀔 것 같지는 않음 * 무엇을 하건 쉽지는 않을 것이라 생각함 * 완전히 행복해 진다는 것은 어려운 일임. * 자신에게 좋아하는 일을 찾는 다는 건 어려운 일 * 지금 세상에서 자살안하고 살아가는 것 자체가 승리

나. 니트현상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1) 니트현상에 대한 이해

가) 니트 현상과 공포의 문제

니트(Not in Employment, Education, or Training)라는 용어는 그 용어로 지칭하려는 사람들을 다분히 부정적으로 정의함. 그들을 외부에서 규정할 뿐 왜 그들이 일하지 못하고, 교육이나 훈련을 받고 있지 않은지에 대해 어떤 정보나 설명도 제공하지 않음.

‘니트’ 라는 용어는 통상 하는 일 없이 빈둥거리는 사람을 ‘백수(白手)’ 라고 말하는 것과는 다른 의미를 담고 있음. ‘백수’ 라는 용어에선 어떤 한가로움이나 여유까지 느껴짐. 누군가를 ‘백수’ 라고 지칭할 때 그 개인의 현재 상황에 대한 기술에 그치나 ‘니트’ 라고 말할 때는 사회문제가 한 개인 속에서 구체적으로 나타난 것 또는 사회문제를 보여주는 개인이라는 사실을 전제하고 있는 것임. 실제로 니트 현상은 ‘사회가 침투된 개인들의 문제’ 이자 ‘개인 안에 침투된 사회의 문제’ 라고 볼 수 있음.

니트라는 프리즘을 통해 만난 사람들은 단지 아무 일도 안하고 있거나 세상물정을 모른 채 사회와 동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의식과 일상에 이미 너무 많이 들어와있는 ‘사회’ 로부터 자신을 지키려 안간힘을 쓰고 있음. 가능한 사회의 영향력이나 사회적인 압력으로부터 어떻게든 자신을 지키려 애쓰고 있는 것으로 보임.

인터뷰에서 나타난 니트 형성의 원인은 매우 다양함. 그런데 니트 상태에 놓여 있거나 니트 상태를 경험한 사람들의 심리 상태나 감정에서는 어떤 공통점이 발견됨. 그것이

니트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는지 이해할 수 있는 단서가 될 수 있음. 그들은 사회적 시선을 과도하게 의식하며 그런 시선에 노출되는 것 자체를 꺼리고 부정적인 평가를 받을까봐 두려워 사람들을 만나려 하지 않음. 또한 일상에서 별다르지 않은 일에 긴장하거나 새로운 시도나 경험을 하는 것에 막연한 두려움을 느끼고 불안에 시달림. 그러한 감정의 근저에는 ‘사회에 대한 공포’가 자리잡고 있는 것으로 보임. 그들이 느끼는 두려움과 불안은 낙오와 탈락에 대한 ‘사회적인 공포’가 커다란 부분을 차지하고 있음. 더욱이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의 사회적 인식은 사회적인 공포를 더욱 강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함.

나) 니트 형성과 유동하는 공포

20대의 문제를 공포의 관점에서 접근한 오찬호는 사회학자 테오도르 켐퍼(Theodore Kemper)가 제안하는 공포와 행위자의 귀인에 주목, 공포에 대한 상이한 반응은 공포의 원인을 어디에 귀인시킬 것인가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고 주장함. 행위자가 공포가 발생한 상황을 외부의 잘못으로 인식할 경우, 책임을 추구할 대상이 뚜렷하게 부각되고 이에 적대적인 반응을 보일 수 있음. 반대로 그 원인을 주체 자신에게서 찾는다면, 그 공포는 ‘미약한 자신’이 극복할 수준이 아닌 것으로 인지됨. 켐퍼는 공포에 대한 반응을 ‘반란’과 ‘예속’으로 구분, 반란은 공포의 원인을 외사(外射)적 차원에서 이해하는 것이고, 예속은 공포에 대한 책임을 내사(內射)하고 공포의 원인을 ‘자기 문제’에서 찾는 것임.

오찬호는 386 세대가 ‘뚜렷한 저항의 세대’로 자리매김할 수 있었던 것은 반민주적이고 공포를 조장하는 사회에 대한 책임을 군사정권이라는 외부적 실체에 물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며 88만원 세대가 ‘절망의 대명사’로 부각되는 이유는 현재의 20대들이 경제구조의 세대 간 착취현상을 구조적으로 이해하기보다 세대 ‘내’ 승자가 되어 ‘자신만은’ 선택받길 희망하며 공포의 원인을 공포를 극복하기에 부족한 ‘나’에게서 찾기 때문이라고 지적.

인터뷰에서도 사회에 대한 공포를 개인이 어떻게 받아들이고, 그 원인을 어떻게 인식하느냐에 따라 니트 상태의 지속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 예를 들면 증권회사에서 일하며 자본주의의 맨얼굴을 보고, 그것에 좌절한 ***씨가 니트 상태에 놓여 있다가 벗어날 수 있었던 것은 공포의 원인을 최종적으로 내사하지 않았기 때문임.

니트 현상과 공포를 연결짓기 위해서는 공포를 자각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에서 출발해야함. 니트 상태를 경험한 이들은 자신들이 겪는 두려움이나 불안, 무력감을 즉각적으로 공포와 연결짓지 못함. 그들이 드러내는 신체적, 심리적 증상들, 즉 대인기피, 불안장애, 공황장애 등은 이들이 항상적인 공포에 시달리고 있다는 것을 반증.

지그문트 바우만(2009)는 공포가 가장 두려울 때는 그것이 불분명하고, 불확실하며,

포착이 불가능할 때이며 대처할 방법이 없다는 것이야말로 가장 큰 공포라고 지적. 우리가 겪는 공포 가운데 가장 무서운 공포, 가장 견디기 어려운 공포를 낳고 기르는 것은 현대의 불안과 미래의 불확실성이며 불안과 불확실성은 또한 무력감의 소산이라고 분석. 우리 자신이 겪는 불확실한 불안, 그 위협이 대체 무엇인지 알 수 없고, 그것에 대해 무엇을 할 수 있고 할 수 없는지 판단할 수 없는 무력함을 ‘유동하는 공포’라고 명명함. 이는 니트 상태에 놓여 있거나 니트 상태를 경험한 사람들이 묘사한 심리 상태나 감정과 놀라울 정도로 흡사함.

바우만이 말한 ‘유동하는 공포’는 분명 자연발생적인 공포가 아니라 사회적 갈등에 의해 강요된 공포이며 ‘부정적인 세계화’라고 명명한 글로벌 자본주의의 출현과 관련있음. ‘유동하는 공포’는 유동하는 자본이 만들어내는 세계화의 결과임. 바우만은 부정적인 세계화의 결과로 국가가 시장의 힘을 규제하는 것을 포기하고 일방적인 ‘부정적’ 세계화 앞에 항복하는 대가로 사회 불안과 붕괴를 가져왔다고 분석, 이는 한국이 겪은 IMF 상황과 그대로 맞아떨어짐.

대학을 갓 졸업한 20대, 그리고 그들보다 약간 나이가 많은 30대 초반의 이 땅의 젊은이들은, 아버지들이 줄줄이 직장을 잃고 거리를 헤매는 모습을 지켜보아야만 했던 세대이다. 평범한 회사원이 되는 대신 자신의 꿈을 좇는 것을 이상으로 알고 살다가, 하루 아침에 그 모든 토대가 무너지는 광경을 목격하고야 만 것이다. (...) 이들에게 경제는 그 무엇보다 ‘공포’로 다가왔다. 선배들은 졸업도 하기 전에 전부 취직했지만, 후배들은 신용불량자가 되지 않으면 다행인 상황이다(노정태, 2008. 오찬호, 논문에서 재인용).

바우만의 지적대로 “새로운 개인주의의 대두, 인간관계의 쇠퇴와 사회적 연대성의 감소”가 세계화의 그늘이라면 한국에서 IMF는 가족의 해체와 양극화, 해고와 실업에 대한 불안이 일상화된 신자유주의 체제의 출현으로 나타남.

현재 2,30대의 삶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IMF 경제위기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고 연구과정에서도 IMF의 영향은 분명히 나타남. 한 인터뷰 대상자는 IMF 이후 가족이 겪은 경제적인 어려움이 자신의 니트 상태에 연관되었다고 밝힘. 무엇보다 그 경험이 사회에 대한 공포를 더욱 강화시켰으며 가족이 겪은 경제적인 위기상황과 함께 사회 자체가 너무나 경쟁적으로 변한 상황에서 느끼게 되는 불안과 무기력을 온몸으로 체감했음.

이들이 느끼는 현재의 공포는 미래를 예측할 수 없는 공포이며 사회적 차원이기에 그 원인을 찾기도 쉽지 않음. 인터뷰 대상자들은 자신들이 겪는 상황의 원인을 근본적으로 ‘부족한 자신’에서 찾음. 공포의 원인을 내부에서 찾을 경우, 행위자들은 ‘공포를 야기한 구조’에 더욱 예속되고, 그 구조로부터 쉽사리 벗어날 수 없다고 느끼기에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려 하지 않음. 문제해결의 유일한 방법은 ‘일단’ 살아남을 방법을 찾는 것임. 그러므로 니트 상태를 유지하는 것은 공포로부터 자신을 방어하고 보호하려는 최소한의 방어임.

2) 니트 현상과 신뢰성의 위기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할 점은 사회에 대한 공포에 가족과의 관계가 영향을 미친다는 점. 무엇보다 가족은 그들이 일차적으로 경험하는 사회. 현재의 핵가족 중심 사회에서 가족은 어쩌면 유일한 사회의 경험을 제공함. 가족 말고는 사회라는 것을 제대로 경험해본 적이 없는 상황에서 가족마저 어떤 상황에 의해 해체되거나 위기를 맞을 때 또는 부모와의 정서적 연결성이 충분히 확고하지 않을 때, 사회로 진입하는 일은 극도의 두려움과 공포로 다가옴.

가) 가족은 왜 공포의 진원지가 되는가

가족이라는 가장 ‘친밀한’ 사회가 일차적인 공포의 진원지가 되기도 함. 부모가 사회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줄 가장 기본적인, 정서적이고 심리적인 피난처가 되지 못할 때 자녀들은 ‘신뢰성의 위기’를 경험함. 부모를 신뢰함으로써 자신을 신뢰하고 세상에 대한 신뢰로 나아가는 과정에서 일차적인 위기를 맞게 됨. 또한 부모 자신이 어떤 여과장치나 배려나 보살핌 없이 사회적인 압력이나 정당하지 않은 사회적인 가치, 태도를 고스란히 전달할 때, 부모 자신이 해결하지 못한 사회경제적인 상황이나 사회로부터 느끼는 부당함, 차별, 분노를 그대로 물려줄 때 자녀들은 무의식적으로 사회에 대한 공포를 학습.

- 경쟁의 낙오자라고 비난하는 아버지의 무의식적인 영향 속에서 뭐든지 누구와 함께 하면 제대로 안된다고 생각함(19세 남성)
- 가족 상황 때문에 대학 진학 포기했지만 가족 내에서 경험한 주류적인 경쟁적인 삶 외에는 다른 삶을 찾지 못하고 있음(21세 여성)
- 부모님의 학력에 대한 콤플렉스로 어린 시절부터 시달렸고 경쟁적인 자신을 잘 인지하지 못하고 인간관계를 잘 풀지 못해 학교생활이 힘들었음(37세 여성).
- 아버지 사업 망하면서 신불자가 되어 위기에 몰린 후 세무사 시험에 떨어져 10년째 니트 상태(35세 남성)
- 부모 이혼과 어머니의 우울증으로 상처 받은 후 대학입시 낙방 후 니트 상태(23세 여성)

인터뷰 대상자들 중에는 가족 내에서 신뢰성의 위기를 경험한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

타남. 이는 사회에 대한 공포에 취약점을 드러내는 조건을 예비하는 것. 사회로 진입할 당시의 상황은 그들에게 이미 학습된 ‘공포’에 두려움과 불안 같은 감정을 야기하여 사회에 대한 공포로 확장됨.

이 때 부모는 그들을 보호할 수 없는 상황이거나 일차적인 공포의 진원지였기에 도움을 주기 쉽지 않음. 가족은 사회로부터 이들을 보호할 장소가 아니라 사회적인 압력을 배양하는 곳으로 인식됨.

부모가 가진 사회에 대한 불안과 사회적인 안전망이 없는 가운데 살아가는 삶, 한번 궤도에서 벗어나면 대열에서 영영 멀어질 것이라는 공포가 전염되고 대물림됨.

부모의 과도한 기대와 학벌에 대한 맹신을 지켜보며 이들은 사회로부터 도피할 장소가 어디에도 없다는 것에 절망. 그럴 때 가족의 어떤 말이나 위로도 또다른 압력으로 다가옴.

- 집에서는 유일한 아들이고 공부도 잘했으니까 아버지가 표현은 안하시지만 실망감도 크지 않을까 싶고 그런 게 본인을 더 힘들게 하고 자꾸 뭔가 대단한 걸 하지 않으면 아예 시작도 안하려고 한다(35세 남성)

- 취업을 해야겠다는 것은 알겠는데 어디에 들어가야 할지도 모르겠고, 무슨 일을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알바는 할 수 있을 것같은데 사회적인 시선이나 제가 제 자신에 대해 갖고 있는 그런 기대도 그렇고, 여태껏 살아왔던 인생을 보상해야할 것같은 그런 어리석은 미련 때문에 그걸 놓지를 못하니까 그런 생각만 놓으면 어디를 가서 뭘 하더라도, 자원봉사를 하더라도 일을 할 수 있는데 일을 시작을 못하겠더라고요. 계속 거기서 막히는 거지요(37세 여성)

- 구직공고를 보고 스크랩은 하는데 정작 이력서를 써서 내지는 않는다. 스크랩을 하면서 그래도 난 노력은 하고 있어 라고 생각하는지 모르겠다. 왜 이력서를 쓰는 것으로 옮겨가지 않는지 모르겠다. 부모님과 같이 사는 애들은 정기적으로 나가고 일을 하게 되면 부모님들이 어디서 일하는지 궁금해하고 기대하기 때문에 굉장히 압박을 느낄 것이다. 실망시키면 어쩌나 싶고. 어떤 성과를 내야하고, 의미나 성장을 해야 한다는 생각을 다들 하니까(39세 여성)

나) ‘공공의 영역으로서 사회’의 부재

인터뷰 과정에서도 드러났지만 많은 젊은이들에게 가족 외의 사회는 명확한 실체를 갖지 않음. 한번도 그들에게 실체감이나 소속감을 준 적도 없고, 그들을 보호해준 적도 없기 때문. 막연하게 어른이 되면, 나이가 들면 사회생활을 한다거나 돈을 벌어야하는 곳으로 인식할 뿐 공공의 영역으로서 사회에 대한 실체감이 없음.

사회에 대한 공포는 실체가 있어서 두려운 것이 아님. 실체도 분명치 않고, 가족이라는 일차적인 사회에서 인간관계나 기본적인 사회관계에 대한 신뢰관계가 쌓여있지 않은 상태에서 그곳으로 진입해야하고, 그것도 매우 치열한 경쟁을 견디며 살아내야한다

는 것이 공포로 다가오는 것임.

그럴 때 사회로 나가는 일은 아무런 안전장치 없이 무방비 상태로, 누군지도 알 수 없고, 당연히 신뢰할 수도 없는 무언가에 자신이 그대로 노출된다는 느낌을 가질 수밖에 없음.

가족을 떠나 만나는 또 다른 사회는 학교 또는 또래 집단이나 현재의 교육상황에서 학교나 또래 집단은 이들을 보호하고 사회에 대한 균형잡힌 시각을 제공한다기보다 사회적인 공포를 학습하고, 전염시키고 배포하는 곳이 되고 있음.

이들이 경험한 일차적인 공포에 경쟁이라는 기제까지 얹혀지게 된다. 사회적인 압력이 효과를 발휘하는 것은 경쟁이라는 기제를 통해 가능.

특히 요즘 20대의 삶은 1등이 아닌 나머지가 ‘세대 내 경쟁의 패배자’로 살아가는 일. 삶 자체가 ‘열풍’인 셈. ‘비교’를 통해 스스로를 완성시키는데 아주 익숙한 이들은 비교하고, 남을 ‘평가절하’하여 스스로에게 만족을 주는 행동을 지속적으로 학습해왔고 다른 사람과 무엇을 함께 하며 자신을 확인하기보다 고립을 선택하려 함. 그러한 삶의 방식을 유지 강화시키는 것이 현재의 경쟁적인 교육시스템이며 학교임.

- 고3 때 담임의 경쟁적인 훈육방식에 공포를 체험한 후 공황장애를 앓게 됨(39세 여성)
- 따돌림으로 힘든 학창시절을 보낸 후 사회로 진입하는데 두려움을 느끼며 니트 상태에 놓임(24세 남성)
- 경쟁을 강요하는 학교 분위기가 싫어 나왔지만 타인에게 문을 여는 법을 모르고, 자기가 좋아하는 것으로 남들과 다른 차이를 만들어내는 것이 정체성을 찾는 방법이라고 생각함(21세 여성)

3) 니트 현상과 과잉 교육의 문제

니트 상태에 놓여있는 사람이 사회로 진입하는 것을 미루거나 유예하는 원인을 살펴보면 인터뷰 대상자가 20대이나 30대이나에 따라 미묘한 차이를 보여주는 지점이 발견됨.

30대는 학벌과 좋은 직업에 대한 선호라는 비교적 분명한 요인을 갖고 있음. 그것을 갖추기 위해 준비하다가 포기하거나 그것을 갖추는 능력이 없다는 것에 좌절하거나 그것을 갖추지 않는다면 사회에 나갈 자격이 없다는 생각을 하는 것으로 나타남. 그러나 중산층 부모를 둔 20대, 또는 중산층 부모를 둔 30대 초반에서 나타나는 문제는 ‘과잉 교육’과 연관이 있음. ‘과잉 교육’은 고학력자의 니트 현상을 가속시키는 주요한 원인으로 지적됨.

- 어머니의 치맛바람에 의해 사교육의 세례를 받았으나 어머니가 돌아가시자 삶의 중심이 흔들렸고 니트 상태에 빠짐(34세 여성)
-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알고 있고 그것을 하겠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을 현실화시키는 것은 계속 유예함. 그 일을 잘해내지 못하거나 성과가 없을 때 벌어질 상황에 대한 두려움 때문(21세 여성)

20대 중에는 여러 가지에 흥미를 느끼고 뭐든 할 수 있을 것같은데, 실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에 좌절하는 특징을 보이는 경우가 많음. 인터뷰 대상자 중에 ***는 조울증이 반복되는 것처럼 막 무언가에 몰입하는 시기가 있는 반면, 아무것도 하지 않는 상태가 반복되었다고 함. 자기 자신의 동력이 약하거나 그 동력의 근원이 모호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임. 어려서부터 부모님, 특히 엄마의 개입과 사교육을 비롯 온갖 유사교육이 제공되었지만 정작 자기라는 게 만들어질 시간이 없었다는 것. 이들이 교육을 통해 뺏긴 것은 다름 아닌 자기가 무엇이나, 어떤 사람이나, 무엇을 할 수 있냐는 실체감, 삶에 대한 실체감으로 보임. ***의 경우는 자기가 만들어질 수 있는 시간으로 니트 상태를 정의하기도 함. 그렇다면 자신이 새롭게 만들어지기 위해 어떤 핵심적인 과정이 필요하겠냐는 것이 이후 고민해봐야 할 문제임.

‘과잉 교육’의 문제를 비롯해 현재 한국에서 교육은 그것에 의존하면 할수록 실제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서 멀어지는 이상한 구멍과 같음. 인터뷰에서 드러나듯 교육, 학벌, 공무원 시험 등은 니트 상태에 놓여있거나 니트 상태를 경험한 사람들을 도와줄 무엇인가가 아니라 사회적인 공포를 야기할 압력으로 작용하거나 현실과 마주할 것을 유예하고, 회피할 수 있는 좋은 구실이 되고 있음.

최근 연구에 따르면 한국의 청년 실업과 니트의 증가 원인을 이중 노동시장에서 찾는 것으로 나타남. 그런데 이중 노동시장 이전에 이중 현실이 있다는 것을 고려해야함. 대학만 나오면 다 될 것 같은 가상의 현실과 학벌과 스펙이든 뭐든 있어도 고용 자체가 증가하지 않은 실제 현실의 간극임. 그런데 현재 교육은 진짜 현실과 마주하는 것을 지연시키거나 회피할 수 있는 구실이 되고 있음. 대다수의 한국의 젊은이들은 교육이든 학벌이든 체제통합적인 이데올로기에 순응하거나 순치되어 자신들이 본 현실의 간극을 구조적인 문제로 보지 않고, 그저 자신이 뭔가 더 노력하지 않거나 못나서 경쟁에서 밀려났다고 생각하고 있음. 이는 앞서 말한 사회에 대한 공포를 내사하는 것과 연결됨.

20대는 여기에 “네가 좋아하는 일을 하라”는 부모들의 환상적인 정언명령이라는 또 다른 압력이 뒤따름. 개인의 특질이나 개성을 지지하고 발현할 수 있는 교육 여건이 갖춰지지 않은 상황에서 좋아하는 것을 찾는 일은 생각보다 쉽지 않다. 그것을 찾았다 하더라도 그 일을 잘해서 직업으로 삼는 것은 매우 어렵다. 게다가 자녀가 좋아하고

하고 싶은 일이 사회적으로 평가받는 일이 아닌 경우, 부모들은 언제 그랬냐는 듯이 말을 바꿔버린다.

- 부모님이 대안교육을 차별화되는 교육으로 이해하고, 경쟁을 더욱 은밀하게 강요한다(21세 여성)
- 부모님이 명시적으로 드러내지 않지만 남들과는 다른 무언가를 하길 바란다(21세 여성)

4) 니트 형성과 일과 노동에 대한 인식

니트 현상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경제활동에 참가해야 할 청년들이 일을 하지 않고 있다는 것임. 그러나 정작 청년들이 일에 대해, 노동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에 대해 관심을 두지 않고 있음. 교육의 문제와 더불어 젊은이들이 사회로 진입하는데 어려움을 던져주는 것이 일과 노동에 대한 비현실적이고 분절된 사고와 인식이라 할 수 있음.

연구를 함께 진행한 청년 리서치팀의 토론에서 나타난 일과 노동에 대한 인식을 통해 요즘 젊은이들이 갖고 있는 일과 노동에 대한 생각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음.

가) 청년리서치팀 토론에서 나타난 일과 노동에 대한 인식

○ 재미있고, 의미있는 경험과 지겹고 하기 싫은 일이 따로 있다.

- 돈 벌려고 하는 알바와 재미와 의미있는 일을 할 때에는 다른 것 같다.
- 일은 솔직히 사람을 굴리는 것이라 생각함. 고용한 사람이 사람을 굴리고 돈은 그에 대해서 그냥 어쩔 수 없이 국가나 고용주가 주는 거고. 다큐에서는 대기업에서 사람들 등에 빨대 꽂고 빨아먹는다고 하더라.
- 원래 일이 짜증스러운 건가?
- 학교에서 공부 못하는 애들이 하는 일이라고 정의된 일을 하기 때문에 힘들었던 것 같음. 몸 쓰는 일을 하는 것에 대해 부끄러웠음. 자라면서 몸을 쓰는 일은 공부를 못하는 애들이나 하는 일이라고 배우는 것 같음
- 그런데 좋아하는 일을 해야 한다는게 부담이 된다고 하는 말도 이해가 가는 게 하도 좋아하는 일을 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많으니까 내가 좋아했다가 하더라도 막상 그걸 직업을 가지게 되면 내가 이걸 좋아해서 하나 하는 질문을 하게 되는 것 같음

- 첫 알바를 했는데 막상 해 보니 일이나 상황이 너무 복잡했음. 잘 해야 하고 제대로 해야하고 눈치도 봐야 하고 나중에는 내가 왜 이 짓까지 하면서 돈을 벌어야 하나, 하늘에서 돈이 떨어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함.
- 교육도 소비로 생각한다고 했는데 학교도 그냥 낭비였음. 알바도 그렇고. 그냥 시간을 보내는 것. 그런데 청년 허브에서 보면 시키지 않아도 새벽까지 하지 않나. 그런 게 피로할 텐데 하는 거 보니까 되게 부러웠음. 그 전까지 나한테 일이나 공부는 그냥 기계처럼 자동적으로 하는 것으로만 생각했음.
-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것이 중요함. 어쩔 수 없이 하는 일을 하지 않고 기꺼이 하는 일이 중요함.

○ 돈과 연결되지 않는 일이나 노동에 대해 생각해본 적도, 경험해본 적도 없다.

- 노동은 학교에서 배우면서 알게 되었는데 노동을 하고 그에 상응하는 적당한 대우를 받고 이것이 합리적이라고 배웠음.
- 돈을 생각하면 어쩔 수 없이 돈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아니까 괴로움. 돈을 벌려면 어쩔 수 없이 일을 해야 하고.
- 돈으로 더 많은 대접, 편의, 보상을 기대하게 되었음. 좋은 대학에 가려고 노력하는 것도 마찬가지다. 좋은 대학에 가려고 스펙도 쌓고 학원도 다녔다면 그 많은 시간과 돈을 보상받고 싶지 않을까.
- 사회생활은 돈을 버는 일이다. 사회생활은 돈을 벌거나 생산적이거나 직업을 가지고 월급 받고 일을 하는 것인 것 같음.
- 결국 내가 이렇게 공부 많이 했는데 창자에 피를 넣고 순대 만드는 일을 할 수는 없지 않냐?고 생각하게 된다. 그런 힘든 일은 결국 외국인이 하고 고학력자는 덜 힘들고 돈을 많이 받으려고 하는 일만 하려고 한다.

○ 결론은 늘 돈이지만 돈에 대해서는 매우 양가적인 감정을 갖고 있다.

- 돈과 관련된 안좋은 기억 때문에 돈 생각하기 싫다. 부모님이 돈 돈 하는 것도 싫고 맨날 돈 때문에 서로 싸우고 해서 나도 돈돈 하면 돈 귀신 되는 것 같아서 싫었음. 그래서 돈 이야기 하는 것 자체가 싫다.
- 돈이 필요한 상황이라는 걸 알고 부당한 요구를 하고 목덜미를 잡고 있다고 느낌. 돈이 필요해서 원래 하기로 했던 일이 아닌 다른 일을 요구해도 그냥 할 수 밖에 없음. 돈 때문에 복

중하는 문화를 가르침. 알바를 하면서 수치심과 모욕감을 준다.

○ 일과 노동 그 자체에 대해 생각해본 적이 없다.

- 우리나라는 공부를 너무 많이 해서 공부가 질려서 더 이상 배움에 대해서 순수한 열정을 못 느끼는 상태가 되어버림. 배움의 열정은 코웃음 치는 말. 그리고 일하고 사회에 나가는 것에 대해서도 겁을 먹을 것 같음. 어른들이 어렵다는 말은 자주 하지만 해결책은 공부만 내 놓고 나머지는 어떠한 조언이나 정보도 주지 않음. 그래서 교육을 받아 놓고도 나오기가 겁이 날 수 있음. 아니면 사자 붙은 직업에 콤플렉스로 내가 하는 일에 대한 자조적인 심정이 들 것 같음. 내가 감히 어떻게, 내가 무슨, 내가 하는 일은 비교도 안 돼.

- 사회가 청년들에게 일을 안 하면 나쁜 것이고 일을 안 하면 무가치하게 느끼게 함.

젊은이들에게 일은 하기는 싫은데 돈을 벌기 위해서는 해야만 하는 것이 되어버렸음. 청년리서치팀에 참여한 사람들 중 일을 통해 보람이나 긍지를 느끼고 인정을 받아본 경험을 가진 사람은 거의 없음. 지방에서 용접을 비롯해 다양한 일을 해본 청년만이 일 그 자체를 경험할 기회와 일이 가져다주는 보람과 긍지를 맛보았다고 말함.

청년리서치팀을 비롯해 대부분의 젊은이들은 좋아하는 일, 하고 싶은 일만 하고 싶다고 생각하면서 그렇지 않은 일이나 기회에 대해서는 고려를 하지 않음으로써 스스로 경험이나 배움의 경로를 차단함. 좋아하는 것이 일이 되었을 때의 곤란함, 좋아하는 일을 직업으로 삼는 것의 어려움, 그것으로 돈을 버는 것의 또다른 고충 등의 일과 관련된 매우 중요한 지점을 서로 연결짓지 못하고 모두 따로 떼어놓고 생각함. 모두 일에 대한 비현실적이고 분절된 사고의 결과들이라 말할 수 있음. 또한 소비와 구매행위의 등가교환에 익숙해서 아무런 댓가 없이 일을 한다거나 관계를 통해서 맺어지는 일의 교환이나 노동의 의미 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음.

나) 자기 계발하는 주체와 대체되는 노동

일과 노동에 대한 이같은 인식에는 소위 ‘자기 계발하는 주체’ 라는 신자유주의 체제에 걸맞는 노동주체의 출현이 자리잡고 있음. 사실 ‘자기 계발하는 주체’ 는 언뜻 멋지고, 굉장히 자유로운 것처럼 보이는데 실은 자유 의지를 자기를 착취하는데 사용함으로써 자발적으로 체제에 복종하는 주체이기도 함.

현재의 2,30대의 부모가 국가에 순응했다면 그의 자녀들은 체제의 완전무결함을 자신을 단련시킴으로써 증명하려 함. 자기 계발하는 주체는 금융자본주의, 인지자본주의의 새로운 전개방식에 딱 맞는 노동주체의 한 유형. 창의성으로 무장하고 매순간 위기를 새롭게 변신하는 자본의 모습을 닮고 싶은 주체의 모습. 그 때 일은 의미있고, 창의적인 일이라고 이야기됨. 그러나 실상 많은 사람들이 겪고 있는 일과 노동의 현실은 "대

체 가능한 노동"임.

"대체되는 삶"은 단지 수사적인 표현이 아니라 노동과정과 노동의 유형에도 모두 연결되는 문제들임. 숙련 노동자에 대한 의미 부여는 이미 사라진지 오래고 일 자체에서도 어떤 기술이나 자리든 기계 또는 다른 누군가에 의해 대체될 수 있음. 정년이 보장되는 일자리는 이제 거의 없고 정규직은 비정규직의 존재를 통해 늘 너의 일자리는 다른 누군가에 의해 대체될 수 있다는 불안을 느낄 수밖에 없음. 사회에서 모든 일과 노동이 이렇게 대체재를 늘 염두에 둘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때 출현하는 것이 바로 "대체될 수 없는 노동", "의미있고 창의적인 일"이라는 환상이라 할 수 있음. 그런 일을 찾기 위한 스펙 쌓기 경쟁과 자기 계발. 개인이 스스로를 착취하면서 대체될 수 없는 인간이라는 것을 증명하도록 하는 것은 가장 고도의 지배방식이기도 함. 일을 의미있는 일과 그렇지 않은 일로 나누고, 의미있고 좋아하는 일을 해야한다는 정언명령은 여기서 등장함.

‘대체되는 삶과 대체불가능한 삶’이라는 대칭의 구도를 넘어설 수 있는 방법, 스스로를 착취할 수 있는 자유를 다른 곳에 사용할 수는 없는가. 그것은 니트 문제에서속고할 지점임. 니트 상태에 놓여있는 사람들은 그러한 자기 착취를 일시적으로 중단하고 있거나 유예하려는 것으로 보임.

앞서 논의했던 신뢰성의 위기는 여기서도 다시 제기됨. 내가 일하는 자리는 언제든 다른 누군가에 의해 대체될 수 있고, 이 사회에서 나란 존재는 그렇게 대체되는 존재이며 내가 하는 일이 그렇게 의미 없고, 하잘 것 없을 수 있다는 것임. 그럴 때 나란 존재를 언제든 대체될 수 있는 존재로 바라보는 인간관계, 조직, 사회를 불신할 수 밖에 없음. 그런 세상에 내가 굳이 들어가야할까. 그런 세상에서 누구를 믿을 수 있단 말인가. 연대와 협력은 점점 더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 되고 있음.

다) 일과 노동을 바라보는 새로운 시선과 경험

니트 상태에 놓여있는 청년들 뿐만 아니라 젊은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일자리만이 아니라 일에 대해 새롭게 사고하는 것임. 일과 노동에 대한 인식의 변화와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경험이 필요함.

- 일은 짜증도 나고 재미도 있고 지루하기도 함. 일은 그 모든 것이다. 아무리 좋아 하는 일이라고 해도 그 과정에는 지겨운 것도 있고 즐거운 부분이 모두 있다는 것을 체험해야함. 그 모두가 다 일에 들어있고 그것이 다 합쳐져서 일이 되는 것임.
- 해야 할 일이 있고, 누군가는 그 일을 해야 함. 누구도 예외일 수는 없음. 누구는 의미 있는 일만 하고, 누구는 짜증나는 일만 하고 누구는 돈만 버는 일을 하고 그렇게 나누어져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 일은 그렇지 않음.

- 과거 일할 때 내 모습을 회상하면 그림다. 그때는 일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일할 때만큼은 좋았고 인정받았고. 긍지를 느꼈음. 힘들었지만 결국 누구라도 해야 할 일은 하고 도와야 할 일은 도와야 하니까.

○ 좋아하는 일이나 의미 있는 일이 아니라 지금, 할 수 있는 일을 먼저 시작하자.

- 아무도 나한테 그냥 조금해하지 말고 뭘 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그냥 지금 당장 너 하고 싶은 것만 하다가 나중에 현실에서 욕심이 생기면 그때 나가서 하라고 이야기한 사람이 없음. 그런 생각은 해 본적도 없고 들어본 적이 없어서 지금 들으니까 아 그때 내가 저 말을 들었으면 좋았겠다 하는 생각이 들

○ 일의 결과나 의미가 아니라 일 그 자체로 담백하게 바라보고 경험할 수 있어야 함

- 일을 하는 것을 좋아한다. 일을 하면서 실제로 스트레스를 잊어버릴 수 있음. 일을 하면 잡생각이 없어짐. 도시에서 일하는 사람과 시골에서 일하는 사람이 다름. 도시에서 일하는 사람은 학교도 더 좋은데 나왔는데도 불평을 많이 하는데 시골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은 별로 불평이 없는데 그 이유가 뭔가를 성취한다는 느낌이 들기 때문임. 시골에서는 일을 하면 항상 성과가 확실하게 나오니까 그렇고 서로 도와주면서 같이 일을 하니까 그런 것 같음. 일이 없어도 그냥 동물을 키우고 먹이를 주는 것도 일이기 때문에 할 일이 없을 수 없음. 물론 시골에서도 니트가 되어서 게임만 하고 일을 안 할 수 있는데 그래도 나는 일을 하면 좋기 때문에 일을 함.

연구를 통해 만난 니트 상태에 놓여 있거나 니트 상태를 경험한 사람들은 자신들이 경험한 이중의 현실과 그 간극에서 어렴풋이 감지했거나 그 균열에서 자신들이 무엇을 목격했는지 아니면 무엇을 목격하지 않으려고, 또는 자기가 본 것을 부인하기 위해서 어떤 방식의 도피나 방어 등등의 반응을 보이는 것으로 보임. 사회에 대한 공포가 그들을 압도하기 때문. 무엇보다 그들을 사회적인 공포로부터 차단할 수 있는 안전한 심리적, 정서적, 물리적인 공간이 필요함. 이와 더불어 사회에 대한 공포 또는 사회적인 공포의 원인을 제대로 인식하도록 만드는 것이 필요함. 그것은 정서적인 지지나 지원만이 아니라 일과 노동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비롯한 매우 논리적이고 이성적인 판단과 이해를 요구하는 작업임.

5. 결론: 니트현상화 문제의 해결을 위한 새로운 방향과 내용

가. ‘니트’에 초점을 둔 해결의 문제점과 새로운 방향

지금까지 결과분석을 통하여 청년 니트화 현상은 소수 사회 부적응 청년의 문제가 아니라 공공성이 결여된 채 오직 자본의 논리에 의해 구조화되는 사회에서 나타날 수 밖에 없는 청년일반의 문제라는 것을 알 수 있음. 이와 더불어 니트 상태로 유입되고 그 상태를 강화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은 분명 개인과 가족 내에서의 개별적인 경험이지만 그 과정에서도 개인이 미처 의식하지 못한 채로 사회구조적 문제가 투영되어 있음을 알 수 있었음. 즉, 니트상태에 진입하고 그 상태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게 된 것은 당사자 개인과 가족 내에서 시작되었다 하더라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앞서 4장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이 문제에 대한 사회와 개인의 통합적 인식이 필요함.

만약 니트현상화의 문제를 ‘니트’에 해당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결하려는 시도를 한다면 이는 또다시 니트문제를 사회와 개인의 통합적인 관점이 아닌, 니트라는 개별 집단에 초점을 둔 개인적인 관점에서 보게 되는 것임. 니트를 사회가 양산해 내고 있다는데 왜 양산하는 기본 시스템의 문제를 이야기하지 않고 양산된 니트만을 이야기하는가. 특히 니트를 찾아내고 니트를 보호하고 니트를 위한 공간을 만드는 등의 해결책은 니트를 양산할 수밖에 없는 자본의 지배구조를 더욱 공고히 하는 것이며 문제를 오히려 더욱 고착화시키게 됨.

따라서 본 리서치에서는 니트현상화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대안이 마련되어야 함을 전제로 함.

- 니트현상에 대한 해결은 청년의 사회적 존재와 삶에 대한 권리를 보장하는 방향을 지향함
- 니트현상에 대한 해결은 지금까지와는 다른 가치와 방식으로 신뢰와 성장을 경험할 수 있는 새로운 사회화를 지향함.

나. 새로운 사회화를 위한 핵심과정

앞서 4장에서는 니트란 용어가 유동적 자본이 지배하는 사회구조적인 문제가 개인에게 침투되어 ‘공포’와 ‘불신’의 흔적을 남기는 과정을 설명하였음. 그렇다면 여기서는 그것을 인식한 개인이 그 흔적에서 벗어나서 자신의 삶을 시작하기 위해서 자각해야 하는 것은 무엇인가를 설명하고자 함. 본 리서치에서는 이러한 과정을 ‘핵심자각과정’이라 정의함.

핵심적인 자각의 과정: 개인의 변화가 곧 사회적 변화의 시작이 되고 사회적 변화가 곧 개인적인 차원에서도 변화를 일으킨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

즉, 핵심적 자각의 과정은 나에게 변화가 필요한 그 지점이 바로 사회가 지닌 문제점이 '나' 라는 개인에게 침투된 지점임을 자각하는 것이어야 함.

1) 핵심자각과정의 내용

가) 자격에 대한 자각: 사회적 인간으로서 내가 나의 삶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자격이 무엇인지를 결정하는 권한은 누가 가지고 있는가

인터뷰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은 부모와 사회에서 요구되는 자격에 대하여 이야기하였음. 이들에게 요구되는 자격은 “내가 부모나 사회로부터 인정을 받을 자격을 갖추지 못해서 너의 삶이 힘든 것이다”, “자격을 갖추면 너의 삶도 달라진다”, “사회에 대해서 불평하기 전에 먼저 사회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갖추도록 해라” 와 같은 것임. 그리고 그 내용은 유명대학 학력이나 유명회사 취직이나 다른 방식으로 사회적으로 유명해지거나 돈을 많이 버는 능력 등, 개인책임의 무한경쟁 사회에서 다른 사람보다 우월한 사회적 자리를 차지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었다는 것을 증명하라는 요구임.

- 서울대 가보지도 못하고 말 할 자격이 있나(21세 여성)

- 솔직히 사회에 대해서 아버지보다 내가 더 잘 알지 못하니까 나는 뭐라고 말할 수 없지 않은가(21세 남성)

- 가고 싶었던 대학에 가지 못해서 대학생활이 별로였다(34세 여성)

- 모범적인 형에 비해서 나는 학교도 그만두고 공부도 못해서 어머니를 속상하게 하니까 미안했다(25세 남성)

자격에 관한 자각이라함은 이 자격부여의 권한을 왜 부모와 사회가 가지고 있는가를 질문하는 것임. 나의 삶에 대한 자격부여는 나만 할 수 있는 것임. 나를 사랑하는 것의 시작은 나의 삶에 대한 자격부여의 권한을 부모와 사회로부터 되찾아오는 것으로 시작해야 한다는 것을 자각하는 과정이어야 함.

청년들이 경쟁에서의 낙오와 개인책임의 공포에서 벗어나 다른 삶을 구성하고 살아가기 위해서는 새로운 가치가 필요하고 이에 따른 새로운 자격이 요구됨. 새로운 가치는

공동체적 사회를 추구하면서 그 안에서는 자립적인 개인으로 존재하고 성장할 수 있는 삶을 지향하는 것임.

나) 불안에 대한 자각: 사회적 진입에 대한 불안은 과연 어디에서 시작된 것인가.
그리고 불안으로부터 벗어나려면 무엇을 시작해야 하는가

- 일을 하려고 해도 잘 못할까봐 걱정이고 독립하려고 하면 오히려 더 힘들까봐 못 한다(21세 남성)
- 일을 시도하면 확실히 돈이 되는 것을 해야 한다. 어찌 되었든 한달 내에 끝장을 봐야 한다 (39세 여성)
- 내가 뭘 배워도 그걸 직업으로 안 할 수도 있고 성과를 낼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34세 여성)
- 알바를 하게 되면 잘 못할까봐 시작을 못한다(31세 여성)
- 다른 아이들은 벌써 대학 다니고 취직준비도 하는데 나는 아직 시작도 안 했다고 생각하니 엄청 불안했다(25세 남성)

잘 하지 못할까봐, 틀릴까봐, 성과를 못 낼까봐, 확실히 못 할까봐 등등, 이런 개인의 불안은 언제 나타나는가. 그것은 내가 이 경쟁사회에서 주류에 속하지 못하고 추락할 지도 모른다는 공포와 그렇게 되는 가장 큰 원인은 바로 내가 무능력하고 노력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하는 철저히 개인주의적인 귀책구조사회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는 순간에서 나타남. 즉, 경쟁사회에서 주류에 살아남지 못한 개인에게 남는 것은 실패한 무능력자의 불확실하고 불안하고 무기력한 미래의 삶이라는 공포와, 그런 개인을 이해하거나 도와주거나, 그런 개인에게 다른 곳에서 다른 삶을 시작할 수 있는 가능성과 기회를 제공하는 사회의 지원은 그 어느 곳에서도 없을 것이라는 공포 뿐임.

우리 사회는 이미 세계화에 동참한 국가의 사회불안의 댓가로서 IMF라는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사회 구성원들이 하루 아침에 얼마나 처참하게 붕괴할 수 있는지를 경험하였음. 인터뷰에 참가한 여러 사람들도 금융위기 때 자신의 꿈과 계획이 좌절되고 가족이 붕괴되고 심각한 경제적 위기에 대응하느라 생계형 일자리에 급급할 수 밖에 없었던 공포와 두려움을 이야기 하였음. 그리고 이들은 그 과정에서 사회나 가족의 어떤 제도나 사람들에게도 책임을 같이 나누려고 하는 신뢰의 관계를 경험하지 못한 것임.

결국 우리 사회에서는 개인이 사회적 관계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주류에 입성을 하던

지, 아니면 그렇지 못한 삶의 불확실한 미래는 아무도 책임져주지 않으며 전적으로 개인이 혼자 책임져야 한다는 냉혹한 현실을 받아들이는 수 밖에는 없음. 그리고 이런 두려움은 끊임없이 주류에 편입되지 못할 것에 대한 불안을 야기시킴. 다른 사람보다 우월하지 못해서 주류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것은 곧 내가 열등하다는 것이고 이것은 곧 나의 사회적 존재가치가 미약함을 의미함. 그리고 이러한 열등감은 나를 경제적으로 지원하고 투자한 부모에게 유효한 존재가 되지 못한다는 죄책감을 불러일으키는 것임. 마지막으로 이러한 죄책감은 다시금 자신의 자격이 부족함을 탓하는 자기비하의 열등감을 강화시키면서 점점 더 사회적으로 철회하게 되는 것임.

그런데 이러한 우월성 가치-> 비교-> 열등함-> 자기비하-> 죄책감-> 개인의 자격부족-> 불안-> 사회적 철회의 악순환은 우리 사회의 경쟁 시스템에서는 필연적으로 나타날 수 밖에 없는 과정이며 이 시스템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순환과정이 오히려 유지되어야 함.

만약 우리가 경쟁에서 이겨서 주류사회에 편입되어야 한다는 우월성에 대한 가치를 삶의 가치로 채택하지 않는다면 우리에게 남는 것은 무엇일까? 그것은 특별히 목적과 이득을 따지지 않아도 되는 단순하고 담백한 배움(공부)과 익힘(노동을 통한 기술습득)이 될 것임. 배우고 익히기 위해서는 나에게 재미있고 의미있는 이유와 동기가 있어야만 한다는 것 역시 남과 다른 나만의 차별성을 가짐으로써 불안을 견뎌내려는 개인적인 시도일 수 있음.

왜 우리는 남보다 우월하지 못할 바에야 남이 가지 않은 길을 가야 하고 남과 다른 것을 해야 하고 뭔가 특이한 삶을 살아야 하는가. 이것은 경쟁과 우월성을 추구하는 사회에서 살아남기 위한 또 다른 형태의 개인주의적 삶의 방식일 수 있는 것임.

다) 나는 '니트' 인가에 대한 자각: 나를 어떻게 설명하고 규정할 것인가

-니트 문제가 사회적 문제라는 것을 알고 나니 현실이 더 막막해지고 답답해졌다(21세 여성)

-인터뷰에 응한 많은 이들이 니트들만이 가는 공간은 싫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니트가 나를 설명하지는 못하는데 그렇다고 내가 나를 어떻게 설명할지 모르겠다(32세 여성)

-내가 나를 이해하고 설명하는 것이 필요한 것 같다. 남에 의해 떠안은 것이 아니라 진짜 나의 갈등이 무엇인지도 알아야 할 것 같다(25세 남성)

-내 잘못이 아니다, 심지어 나이 먹는 것도 잘 못했다고 한다, 그냥 자기거 하고 싶어서 자기거 하고 살 수 있으면 좋겠다(31세 남성)

우리 사회는 앞으로 점점 더 많은 니트를 양산해 낼 것이며 동시에 니트를 특별히 지원해야 할 집단으로 만드는 방식을 지향할 것임. 왜냐하면 그것이 니트 문제를 니트들만의 문제로 여기는 대안이기 때문임. 이는 마치 건강한 발달을 위해서 반드시 자유로운 신체 활동이 필요한 아이들에게 학원과 숙제로 필수적인 움직임마저 박탈하고 억압한 후에 주의력결핍과잉행동 장애아가 늘어난다고 경보를 울리고 이들을 위한 별도의 치료학교를 만들고 상담인력을 지원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임. 학교의 교육과정과 사회의 가치시스템이 모든 아이들의 자유로운 신체적 움직임을 우선적으로 보장하도록 바뀌지 않는 한 주의력결핍과잉행동 장애 아이들은 점점 더 늘어날 것임.

결국 니트는 복지의 공공성이 실현되지 않고 교육과 훈련이 공공재화 되어 있지 않은 사회 시스템의 문제를 은폐하는 용어임. 그리고 니트들을 위한 정책을 펴는 것이 니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라는 관점은 결국 소수 중심부에 속하지 못한 대다수의 수많은 청년들이 점차 니트화 되어가는 사회구조를 더욱 공고히 하는데 일조하는 것임.

그렇다면 니트를 폐기하고 나는 내 자신을 어떻게 설명하고 정의하고 싶은가.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아는 것이야말로 사회화 과정의 출발점이 될 수 있음.

라) 협력과 연대에 대한 자각

- 연대라는 것이 낯것이고 어렵다고 느꼈다(21세 여성)
- 뭔가를 같이 하면 할수록 개인의 삶과 분리되는 것 같아서 힘이 든다(25세 남성)
- 학교다닐 때부터 협력해서 잘 되는 경우를 보지 못했다(21세 남성)
- 모듬으로 협동학습하면 항상 한 두 사람이 망한다(21세 여성)
- 관계맺기와 활동과 공부를 같이 할 수 있지만 결국 나의 삶은 아무도 도와주지 않을 것이며 나 혼자 문제를 해결할 수 밖에 없다(21세 여성)
- 연대 속에서 어떻게 개인이 개인으로 존재할 수 있는가(21세 남성)
- 연대하는 삶이 도대체 무엇인가(21세 남성)

지금의 2-30대 청년들 중 많은 사람들은 공동체적인 삶이나 그 흔적도 별로 경험해보지 못하고 협력과 연대의 가치도 오로지 가족 안에서만 강조되었던 세대임. 그 이전 세대보다 가족관계의 중요성, 가족간 소통의 중요성이 무엇보다 강조되는 세대이지만 이것은 실제 가족관계가 점점 더 소원해지고 있다는 증거이며 이는 공동체적 삶이 계속 붕괴되는 것을 경험했다는 의미임. 이익과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연대의 최대 허용의 경계가 가족안에만 머문다면 결국 가족이 아닌 타인의 고통에 내 마음과 자원을 내어주는 것은 어려울 것임. 심지어 가족으로부터도 나를 위해 기꺼이 마음과 자원을 내어주는 경험을 하지 못한 경우도 많음.

연대한다는 것은 서로 상대방과 집단에 기여하기 위해 내 자신의 마음과 자원을 내어줄 수 있는 신뢰의 관계를 구축한다는 것인데 청년들이 성장한 가정과 학교, 사회 환경에서는 이러한 협동적 신뢰관계를 거의 경험할 수 없었음. 오히려 누군가의 열등함을 담보로만 내 자신의 우월함이 가능하고 인정받을 수 있는 상대평가구조에서 친구와 동료보다 나보다 우월할까봐 걱정하고 긴장하고 열등하기를 기대하고 나의 열등함을 누군가는 기대하고 있을 것이라는 상호배척과 불신의 관계를 경험하며 성장해왔음.

따라서 이들에게는 신뢰가 무엇인지를 알 수 있는 새로운 경험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협동과 협업을 경험할 수 있는 노동 환경이 필요함. 또한 외부의 불안과 공포의 가치를 차단하고 새로운 가치에 대해 고민하고 그것을 삶으로 구체화할 수 있는 다양한 경험을 제공하는 안전한 환경이 필요함.

2) 핵심자각과정 활동

핵심자각과정은 개인 및 집단상담, 강좌, 토론, 다양한 집단활동, 노동, 봉사, 창작 등의 다양한 형식의 경험을 통해서 조직화할 수 있음. 다양한 경험에는 다음과 같은 질문이 주요한 활동내용을 구성하는 기준으로 제시될 수 있음.

'자격'에 대한 자각을 위한 질문(예):

- 내 자신의 삶에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나는 어떤 자격을 갖추고 싶은가.
- 지금까지 나는 어떤 자격을 갖추지 못한 것에 대해 어떠한 죄책감에 시달려 왔는가
- 공동체적 가치를 실현하는 좋은 인간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자격을 갖추어야 하는가
- 신뢰적 관계는 무엇이며 어떻게 만들 수 있는가

'불안'에 대한 자각을 위한 질문(예):

- 경쟁사회구조가 부모에게 전가한 불안이 나의 불안이 된 과정을 나는 어떻게 알 수 있는가

- 부모나 사회의 가치와 신념에 벗어날까 두려워하는 것이 내 삶의 지향점이 되지 않으려면 나는 무엇에서부터 변화를 시도해야 하는가.
- 일과 쉼에서 나는 지금까지 중심 축을 어디에 두었으며 이것을 바꾸면 어떻게 되겠는가
- 만약 내가 우월성의 가치에 근거한 불안에서 벗어나서 나만의 배움을 생각한다면 나는 무엇을 배우고 익히고 싶은가

'나'에 대한 자각을 위한 질문(예):

- 청년을 사회에 유용한가 무익한가의 두 가지로만 평가하는 가치체계를 정당화하는 '니트'라는 용어에 대해서 청년으로서 나는 어떠한 용어로 맞대응할 것인가
- 나는 내 자신의 문제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
- 나는 나를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 나는 어떤 사람인지 어떻게 알 수 있고 어떻게 알았는가

'연대와 협동'에 대한 자각을 위한 질문(예):

- 나의 연대와 협동의 경험
- 연대와 협동에 참여하는 것을 막고 있는 나의 거리낌은 무엇이고 어디에 근거하는가
- 개인으로서의 자신을 포기하지 않으면서도 타인과 집단에 기여할 수 있는 삶은 어떻게 조직할 수 있는가
- 나는 지금까지 어떤 노동을 했으며 그 과정은 나에게 무엇이었나
- 나는 현재 어떤 노동을 하고 있으며 그것은 나에게 어떠한가
- 조직해보고 싶은 협업은 무엇인가

다. 청년의 생존권 보장을 위한 정책적 제안

니트문제 해결을 위해 필요한 것은 니트와 대부분의 잠재적 니트를 포함한 모든 청년들의 생존권을 보장하는 것임.

1) 청년기 과제

인생에서 청년기는 무엇을 하며 보내는 시기인가

발달심리학적 관점에서 볼 때 청년기는 정체감 형성의 과제가 시작되는 사춘기의 후반부터 타인에 대한 사랑이 본격적으로 확장되고 심화되기 시작하는 성인기의 초기에 걸쳐있다고 볼 수 있음.

이 시기는 자신이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 그리고 어떤 사람으로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탐색해보는 과정임.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심리사회적 정체감을 찾는 것은 매우 어려운 과정이며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는 것임. 그 시간동안 청년들은 고립, 유예, 무

기력, 우연, 오관의 다양한 경험을 하게 됨. 이 시기를 정체감 추구의 개념으로 설명하고 있는 발달심리학자 에릭슨 본인도 고등학교 졸업 후에 1년 동안 유럽 각국을 일하고 여행하며 보내는 시간을 경험하였음. 실제로 교육과 훈련과 복지가 공공재로 보장되는 유럽의 경우 청년들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자신의 일을 찾기까지 다양한 사회적 준거집단에 소속이 되었다가 그만두기를 반복하면서 풍부한 경험을 하는 경우가 흔한 일임.

청년들이 사회심리적 정체감을 찾게 되면 더 이상 자신에게만 몰두해있지 않고 타인과의 친밀하고 깊은 관계를 형성할 수 있게 됨. 즉, 진정한 자기 자신이 되어야 그 다음에 타인과 친하고 깊은 관계를 맺을 수 있음.

따라서 청년기에는 몇 살에 어느 집단에서 무엇을 해야 한다는 사회적 준거집단의 틀에 국한되지 않고 다양한 경험을 통해 자기 자신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하며 그것을 바탕으로 타인과의 사랑의 친밀한 관계를 맺게 되는 것임.

청년이 이 시기를 위와 같은 과업을 수행하면서 보낼 수 있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사회적인 지지시스템이 필요함. 생존을 걱정할 수밖에 없는 청년들에게 어떻게 다양한 경험을 하고 자기를 찾으라는 주문을 할 수 있겠는가. 그래서 청년들의 교육과 훈련, 생존을 위한 기초복지는 반드시 국가의 공공재로 지원되어야 함.

2) 청년 생존권 보장을 위한 국가의 역할

청년이 사회적 관계 속에서 사회적 삶을 살면서 자신의 삶을 탐색하고 준비할 수 있도록 생존권을 보장해주는 것이 국가의 역할임.

<예>

- 청년의 교육과 훈련은 국가의 공공재로 규정
- 취업-실업-재취업의 교육 및 훈련과정을 장기적으로 담당할 수 있는 훈련기관의 설립 혹은 새로운 전문성과 기술습득이 가능한 기관과의 연계(현재는 주로 생계형 일자리 제공의 차원임)
 - 예) 극빈자를 대상으로 한 예술 직업훈련센터: 맨체스터 비드웰 코어퍼레이션
- 직업고용센터의 무료교육훈련과정에는 장기간 실직과 심리적 고통을 가진 채 방치된 빈곤층 대상자가 대부분임. 심리적 자기이해를 도울 수 있는 충분한 기간의 심리상담과 증상의 치료를 지원하는 연계시스템 구비가 필요함
- 주거지역에 근거를 둔 청년공동체나 공동작업장이나 협동조합활동에 우선적 지원
- 빈곤층 청년들의 독립적 주거와 경제활동의 실현을 위한 정착금 지원

- 교육과 훈련기간 청년들의 주거와 식생활, 의료에서의 기본적인 생존권 보장
- 문화활동, 야채가 있는 식단 등 청년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 지역활동 지원
 - 예) 노원지역 청년협동조합 마디
- 개인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가업유지의 목적이나 기술전수의 목적을 위한 도제식 장인 숙련과정을 공공훈련기관으로 지원하여 청년들의 훈련과정 및 기관으로 인증 등

라. 청년들을 위한 공간

1) 공간의 목적

- 공포와 불안으로부터 오염되지 않을 수 있는 심리적, 정서적, 물리적으로 안전한 장소를 경험(경쟁, 성공, 우월감을 지향하지 않는 정서, 문화, 가치적 관계의 경험)
- 신뢰를 경험하고 그 속에서 협동적 사회적 인간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
(중단되었거나 혹은 실패했다고 여기는 사회화를 새로운 방향으로 재개하고 재시도할 수 있는 공간)

2) 공간의 기능

-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이해할 수 있는 곳
- 삶과 회복의 시간과 경험을 가질 수 있는 곳
- 사회적 관계의 필요성과 의미를 찾을 수 있는 곳
- 가족으로부터 분리된 자립적 존재로서의 자신을 인식할 수 있는 곳
- 개인과 사회적 문제를 통합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곳
- 노동과 연대를 배울 수 있는 곳
- 새로운 형식과 내용의 배움을 경험할 수 있는 곳
- 자립을 위한 정착금 마련 공동체를 경험할 수 있는 곳
- 자본의 음모와 투쟁하며 살아 갈 수 있는 의식 갖추기와 그런 사람들의 연대체로서의 공간
- 무엇보다, 자유스럽고 자연스럽게 사회적 일부로 참여할 수 있는 공간 만들기

3) 공간에 대한 상상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보할 수 있는 공간은 반드시 한 곳에서 다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형식으로 다양한 곳에서 마련되어야 함. 중요한 것은 청년들의 새로운 사회화를 위한 공공성을 지닌 영역과 내용을 많이 만들어내는 것임.

○ 개인 및 집단의 심리상담적 지원의 공간

- 개인과 집단상담의 형식으로 핵심적인 자각의 주제를 다룰 수 있음: 사회적인 문제가 자기 자신의 개인의 삶에 어떻게 투영되었는가를 자각하는 과정.

○ 도서관 카페 형식의 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

- 다양한 청년모임과 프로젝트의 조직과 수행

예) 회복하는 청년모임: 자신에게 필요한 회복을 정의하고 유사한 정의를 한 사람들끼리 모여서 필요한 프로그램을 구성하여 실현해보는 모임
신뢰를 배우는 청년모임, 고립에서 탈출하는 청년모임, 자연과 문명이 조화된 삶을 추구하는 청년모임 등

- 다양한 강좌나 배움의 과정을 경험하고 조직함

예) 새로운 사회화를 이야기하는 다양한 강좌

자본의 의도를 정확히 구체화해서 설명할 수 있는 연구모임과 강의모임
청년들 자신의 배움과 자각의 과정을 창작화하고 발표할 수 있는 경험
(나를 읽어주는 시간이란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카페 등)

○ 적극적인 활동위주의 모임을 할 수 있는 공간

- 지식+경험+노동으로 구성되는 협동적 관계에서의 배움 활동
 - 경쟁없이도 살 수 있는 삶의 방식을 디자인하고 구현하는 시도(예, 협동조합)
 - 경쟁이 아닌 다른 것에서 삶의 원동력을 가질 수 있는 경험을 조직
 - 소비와 구매력이 인간의 능력을 결정하지 않는 공동체 만들기
- 예) 최근 생겨나는 문화포차(음식+문화+인문+연대활동의 공간)

○ 청년의 생존을 위한 공간

- 가족으로부터 분리하고도 살아 낼 수 있는 정서, 경제, 사회적 활동의 안전 기지 만들기
- 예) 청년주거 협동조합, 무직자를 위한 단기체류 시설 엠크류

참고문헌

- 김미숙(2009). 일본 니트(NEET)현황과 자립지원정책에 관한 고찰. <청소년복지연구> 제 11권 4호. pp173-179.
- 남재량(2005). 한국의 사회부적응 청소년 취업대책 : 청년무업자(NEET)를 중심으로. 2005 한일심포지엄.은둔형 외톨이 등 사회부적응 청소년 지원방안. 한구경소년상담원. 동남정신과 주최.
- 남재량(2012). 고졸 NEET와 대졸 NEET. <노동리뷰> 4월호. 한국노동연구원.
- 오찬호(2009). ‘공포에 대한 동년배 세대의 상이한 반응 : 2008년 촛불시위에서 20대를 이해하는 몇 가지 가설’ . <한국청소년연구> Vol. 20. No. 2. pp. 369~371.
- 이로미, 박가열, 정연순(2010). 청년 니트 유형과 특성에 관한 질적 연구 - 구직 희망자를 중심으로-. <진로교육연구> 제 23권 1호. pp. 153-175
- 정연순(2008). 한국형 니트 취업지원 연구. 한국고용정보원
- 지그문트 바우만(2009). 유동하는 공포. 산책자.
- 채창균(2008). 유휴청년연구. 직업능력개발원 정책연구.
- Russell, Lisa ; Simmons, Robin ; Thompson, Ron.(2011). Conceptualising the Lives of NEET Young People: Structuration Theory and "Disengagement". A Journal for Education and Social Enterprise, Vol. 5 No. 3 pp89-106.
- Ron Thompson(2011). Individualization and social exclusion: the case of young people not in education, employment or training. Oxford Review of Education. Vol 37. No. 6. pp 785-802.